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책 부록:친구들 · 2000년 11월호

리아호나

리아호나

표지
독일 드레스덴 스테이크 켐니츠 와드의 게르투르드와 고트프리트 리히터. 사진 촬영: 판덴베르게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일반

2 대관장단 메시지: 풍성한 삶을 얻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14 시온에서부터 멸망까지: 니파이 사서의 교훈 앤드류 시 스키너
25 방문 교육 메시지: 우리의 성약을 지킴으로써 구세주를 영광스럽게 함
26 말일성도의 소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딸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빅토리아 이콩
"그리고 형제님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릴 제이 우드베리
내 아버지의 신앙 리카르도 에노히와 마크 디 크리스천슨
32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34 독일의 힘의 기초 폴 반덴베르크
48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를 활용함

청소년란

7 몰몬 메시지: 진짜 시험
8 성전 건축과 청소년들의 생활 바바라 진 존스
22 여러분의 미래 랜스 비 위크먼 장로
46 3가지 질문 디낼리 채프먼

친구들

2 친구 사귀기: 우간다 엔테베의 단 발레이주사 멜빈 리비트
5 순종과 봉사 애토스 엠 애모림 장로
6 함께 나누는 시간 활동: 말일성도 "믿는 자의 본" 게임
8 이야기: 안젤라의 신앙 리자 에이치 페넬리어스
12 신약 성서 이야기: 예수께서 침례 받으심
16 함께 나누는 시간: 예언자의 모범 앤 재미슨

8쪽 참조

14쪽 참조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 제11호**
20991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즈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정원회: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말린 케이 젠슨
고문:에프 엔지오 부시, 존 엠 매드슨, 알렉산더 비 모리슨
교과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차드 엠 롬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탭: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로저 테리
편집인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데일리
출판 보조 :코니 셰익스피어
편집 보조 :래너 제이 카터
디자인 스탭: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선임 디자이너 :섀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생산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턴슨, 데니즈 커비, 제이슨 엘 멈포드, 디니 엘 소렌슨
디지털 교정 인쇄 : 제프 마틴
구독 담당 스탭: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턴슨
부장 :조이스 핸슨

통 권: 제416호, 제37권, 제11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0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정동찬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립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랜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드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200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November 2000 No.1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애독자 편지

아이보리 코스트의 개척자

우리가 *리아호나*(포르투갈어판)를 받는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는 하나의 기쁨입니다. 아내와 저는 전세계에 있는 교회 개척자들에 관한 기사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1999년 3월호에서 아이보리코스트의 개척자들에 관해 읽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그들의 신앙과 용기, 희생, 그리고 불굴의 인내에 관해 아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또 다른 동기 부여가 되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라는 이 위대한 교회 가족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레그 에디슨 마틴스,
브라질 리오그란데 스테이크,
시다데 노바 와드

저활동 회원들을 도움

리아호나(영어판)에 커다란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1998년 6월호에 실렸던 "왜 전에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기사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스테이크 선교사인 저는 근심 걱정을 지닌 회원들을 많이 만납니다. 때때로 저활동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머뭇거리기도 하지만, 그 기사는 제가 더욱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저활동 회원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항상 교회에서 멀어져 간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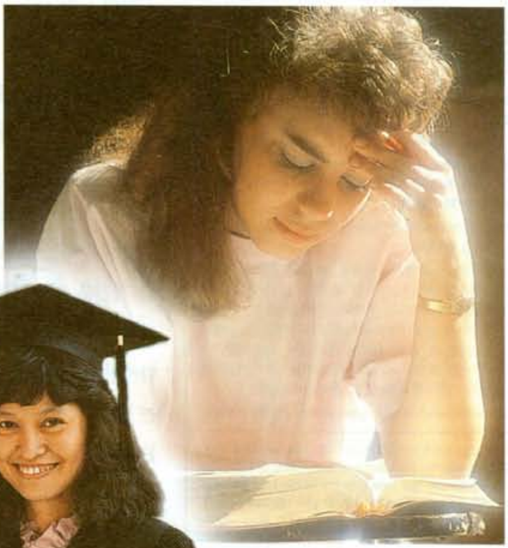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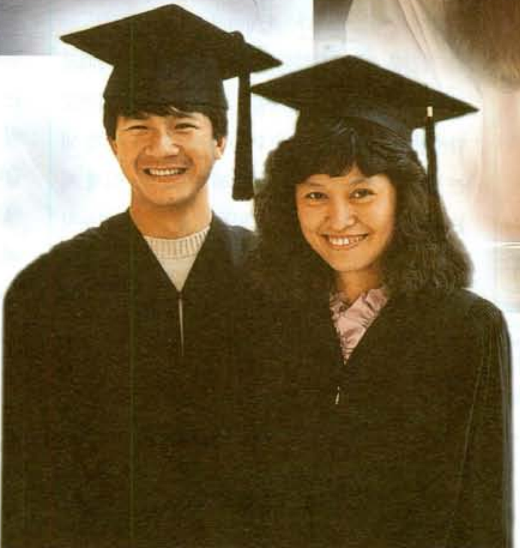
레아 카스트로 델로사리오,
필리핀 가판 스테이크,
산토 크리스토 지부

주님의 도움을 받음

1999년 12월 30일 저는 직장에서 자르딤 파이네이라스 와드의 회원들에 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정원회의 형제들이 주님의 왕국에서 성장하도록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관해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그때에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에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에 저는 집 문 앞에 놓여진 *리아호나*(포르트투갈어판) 2000년 1월호를 보았습니다. 연차 대회 특집호의 앞부분에 실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의 벤 비 뱅크스 장로의 "나의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신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저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의 여러 부분을 장로 정원회 모임에서 형제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저는 형제들에게 가정에서 그 기사를 주의 깊게 읽어 보고 그 주제에 관해 생각해 볼 것을 부탁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받았던 축복에 대해 커다란 감사를 느낍니다.

페르난도 제이 칼데라리,
브라질 주이즈데포라 스테이크,
자르딤 파이네이라스 와드

풍성한 삶을 얻음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풍성한 삶은 어떻게 얻게 되는 것일까요? 풍성한 삶에는 지식과 빛, 그리고 진리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관장단 보좌였던 휴 비 브라운 부대관장(1883~1975)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우고 또 계속해서 배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잊어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엉클 지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틀렸다는 것이다.' 가장 나쁜 악은 진리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거나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서 지적 동맥을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1]

우리는 두 가지 근원에서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렉스 이 리(1935~1996) 형제는 그것을 "이성적인 과정과 초이성적인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학교 수업에

우리가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여 나갈 때 풍성한 삶에 대한 기회도 커지게 된다.

서 그리고 일생에 걸친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는 이성적인 과정과는 매우 친숙합니다. 초이성적 근원 곧 거룩한 근원은 그리 통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근원은 보다 확실한 것입니다. 두 가지 근원 모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서 다른 하나를 완전히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리 형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육 기관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똑같이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 하나를 배움의 중심으로 여겨야 합니다."[2]

우리는 분명히 광대한 우주의 일부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관한 우리의 지식도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경전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키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여 나갈 때 풍성한 삶을 누릴 기회도 커지게 됩니다.

의문이 생길 때

빛과 진리,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며 정보를 수용하고 또 거부하는 끝없는 과정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아니면 여러 번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벙어리 귀신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구세주께 호소하였던 것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마가복음 9:17, 24)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또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교회 회원들이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받았던 예언자로서의 부름 또는 교회의 기본적이고 확립된 교리를 비난하고서도, 그들 스스로가 어떤 영적인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적인 의문 또는 불신앙을 교회의 지도자 또는 교리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으로 표현하거나 영원한 빛을 구하는 사람들과의 대결로 표출시키는 사람들은 거룩한 것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리 또는 지도력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도 신앙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의욕이 부족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배움의 신성한 근원과 분리시킬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교회를 인도하도록 지명 받은 사람들을 지지하여 하나님에 대해 진실한 사랑을 보였더라면 누렸을 풍성한 영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비난하고 결점을 찾고 있는 일부 사람들도 과거에는 요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된 복음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평화롭고 영적으로 안정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들 역시 좀더 보살펴 주어야 할 사람들에 의하여 잃어버린 바 되고 잊혀졌을지도 모릅니다.

안전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어떠한 튼튼한 돌담도 교회 회원들을 세상의 온갖 유혹으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교회 회원들도 기만, 어려운 문제, 그리고 유혹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앙과 판단력, 그리고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부수어 버릴수 없는

오래 전에 일부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비방했다. 이제는 과학적인 증거로 인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로 주어졌던 지혜의 말씀이, 제 의견으로는 이 율법의 가장 커다란 유익은 영적인 것이지만, 육체적 건강의 커다란 율법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보이지 않은 벽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의 안전한 쪽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지고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경전과 하나님의 종들인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따릅니다. 이 지도자들은 인간적인 약점을 지닌 사람들이며 또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에서도 불완전합니다. 지상에서는 인간들에게서 완전함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의 예외없이 이러한 지도자들은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대하고도 헌신적으로 기독교적인 봉사를 최선을 다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지지하고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위대하고 영원한 축복이 오게 하는 거룩한 권한과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소수의 비판자들은 충실한 사람들의 헌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비판자가 십일조와 같은 계명에 대한 순종이 강제적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순종하는 것이 결코 강제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계명에 대한 순종은 결코 강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어떠한 것도 강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 자유의지는 순종의 핵심 원리이며 또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사업에 대한 헌신에서 오게 됩니다. 심각한 범범 또는 배도에 대한 유일한 형벌은 교회의 여러 조직과 그 회원 자격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4:10 참조)

개인적인 자만심이 과연 사람이 신앙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 위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근원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다만 세상적인 배움의 근원에 의지합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에 충실하고 성실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조금은 반대하고 조금은 독립적이되고 또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전해진 전통적 교리 가운데 몇 가지를 비방하는 것이 현명하고 또 세련되고 유행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거룩한 지식의 결여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자주 비방의 대상이 되었던 한 가지 교리는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화를 내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과학적인 증거로 인하여 이제는 지혜의 말씀이, 제 의견으로는 지혜의 말씀의 가장 커다란 유익은 영적인 것이지만, 육체적 건강의 커다란 율법이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한 계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계시는 전부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논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시가 신성한 근원에서 오고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고르고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완전하고 또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나 이것은 진리이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비판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은 어떻게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고 싶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충만하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 그리고 의로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잘못 사용하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로마서 1:25 참조)

회복된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교회 안팎 모두에서 많은 반대와 비판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반대와 비판자들의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약하고 의심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는 살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또 강화되어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사업과 견줄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커다란 성장에 따르는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많은 곳에서 신앙이 커져 가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 역사상 이처럼 많은 성전이 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훼방하는 이들에 의해 중단되거나 심각하게 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의 예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는 교회가 박해 아래서 성장하여 왔음을 그리고 교회가 비판을 받는 가운데서 번영하여 왔음을 결정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리와 의식 또는 지도력에서 결점을 찾음으로써 사람들이 소득 없는 노고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물에 이미 씻음을 받은 사람들도 부주의하게 세속적인 배움의 근원만을 추구한다면 그들의 영원한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복음은 진리와 영원한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영생을 위한 유일하고 충만한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이 교회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교리의 근원

누가 교리를 선포해야 합니까? 현재의 교회 대관장과 그의 보좌들이 교리를 선포하는 열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계시와 관례에 의하여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은 계시를 통

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대관장단은 "온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정원회"(교리와 성약 124:1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에 관하여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이었던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1879~1959)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대관장단]은 하나님의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상에서 대법관들입니다.

"그들의 역할과 위임된 능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들은 일부는 성문화되고 일부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정에 지배를 받습니다. 성문화된 부분은 고대와 현대의 근거가 확실한 경전과 말일의 예언자의 기록된 말씀으로 되어 있으며, 성문화되지 않은 부분은 그들의 부름에 맞는 계시의 영과 거룩한 영감의 부분입니다.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들은 교회 행정 조직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행동하도록 계시에 의해서 지명받은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역원에 의하여 심판이 행해지고 선언되는 것은, 곧 모든 교회 회원들에게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법과 질서의 왕국입니다."[3]

우리는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남으로써 그들의 생각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들을 교회에 있도록 해준 감정을 더욱 북돋아 줌으로써 그들의 진실성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그들의 직관, 그리고 그들 자신의 영혼의 가장 순수하고도 고귀한 느낌에 따름으로써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들 자신들 보다 더 높은 근원을 바라봄으로써, 거룩한 근원으로부터 그들이 지닌 의문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실수가 있었다면,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문은 크게 열려 있으며, 환영의 손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두에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여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제4대 대관장이었던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1807~1898)이 그당시 사도였으나 교회의 지도자에서 떨어져 나간 라이만 와이트(1796~1858)에게 보낸 서한의 정신을 빌어서, 우리는 모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온으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어울립시다. 하나님의 은총과 성신의 은사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그러해야 하듯이 …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합시다. … 우리는 모두가 형제님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곳에는 적대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제님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형제님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4]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비판자들 그리고 적대자들과 해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생에서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몇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진리와 신앙 사이에는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 진심으로 그리고 의롭게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신성한 근원에 대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활짝 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넘어서고 또 우리의 세속적인 관심사를 초월하여 모든 진리에 속한 지식을 알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

주

1. 졸업생에 대한 고별사, 유타 주립 대학교, 1965년 6월 4일.

2. "The proper Equipment", *Brigham Young University 1981~1982 Fireside and Devotional Speeches*(1982), 131~132쪽.

3. 대회 보고, 1938년 10월, 115~116쪽.

4. Ronald G. Watt, A Dialogue between Wilford Woodruff and Lyman Wight," *Brigham Young University Studies*, 1976년 가을호, 113쪽에서 인용.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풍성한 삶은 지식과 빛, 그리고 진리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포함하고 있다.

2. 지식을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또는 여러 번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다.

3. 회원들이 요셉 스미스와 그의 후계자들이 받았던 예언자로서의 부름 또는 교회의 기본적이고 확립된 교리를 비난한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영적인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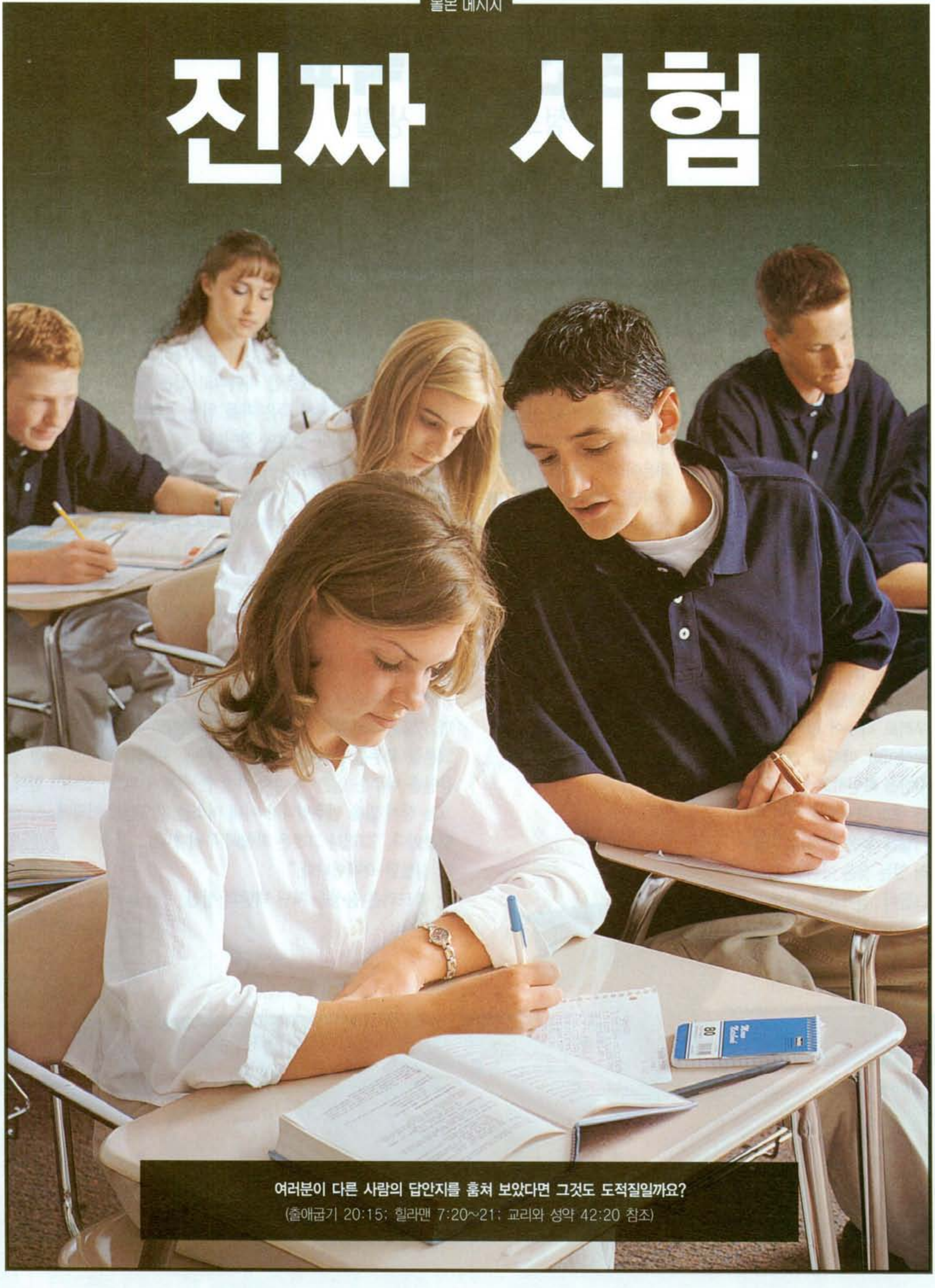
4. 교회의 교리 또는 지도자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도 신앙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열의가 부족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배움의 신성한 근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5. 겸손하게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지고하심을 받아들이고 또 경전과 하나님의 종들인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얻게 된다.

6. 주님의 교회는 우리가 전폭적으로 신뢰할 가치가 있다.

몰몬 메시지

진짜 시험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 보았다면 그것도 도적질일까요?

(출애굽기 20:15; 힐라맨 7:20~21; 교리와 성약 42:20 참조)

성전 건축과

청소년들의 생활

바바라 진 존스

표시 이외의 사진 촬영:글쓴이
브라질 캄피나스 성전 사진 촬영: 라울 린스

이 십대 청소년들은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전 건축 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레시페에서 리우데자이네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살바도르에서 상파울루에 이르기까지, 브라질의 여러 대도시는 매우 분주해졌다. 젊은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워 야외 축제와 시장, 영화관과 쇼 상연장, 음식점과 주점으로 가기 위해 해변가 인도로 몰려 내려가거나 차를 타고 시내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인구 2천 1백만 명으로 브라질에서 가장 커다란 대도시인 상파울루의 한 곳에서는 금요일 밤의 이 화려한 도시의 떠들썩함이 잊혀진 채 수십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아주 특별한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 청소년들은 조명으로 빛나는 한 커다란 건물 주위에 작은 무리로 나누어 앉아서 한 밤에 조용하게 속삭이며 때때로 그들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댄스 클럽으로 가기 위해 이렇게 늦은 밤까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심야쇼를 보기 위해 서성거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훨씬 더 중요하고 커다란 의미를 지닌 어떤 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일은 그들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일로서, 그들이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성전이 말일성도의 수가 70만 명이 넘는 이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성전이었기 때문에, 오직 주말에만 성전 방문 여행을 할 수 있는 원거리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는 교회 회원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성전 문이 금요일은 밤새 그리고 토요일은 늦은 시간까지 열리고 있었다. 회원들이 도착하면 즉시 스테이크 별로 24시간 내내 성전 사업을 행할 시간을 배정 받게 된다.

커져 가는 숙제

전임 상파울루 성전장이었던 알레디르 바르보우 형제에 따르면, "많은 스테이크가 방문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분들 모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 성전 방문단을 다루는 일은 "우리의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덧붙인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갖고 싶었던 숙제입니다."

부드러운 음성을 지닌 백발의 성전

브라질 성도들은 성전에 참석하기 위한 장시간의 버스 여행과 성전에서의 오랜 대기 시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는 브라질 캄피나스 성전(아래)과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오른쪽 아래)을 포함하여 여러 성전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있게 될 것이다. 이 청소년들은 그곳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장은 상파울루에서 북동쪽으로 200 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대도시인 벨로리존테에서 버스 여행으로 온 일단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예로 들었다. 이 스테이크에서 온 청소년들은 10,000만 명의 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이름들은 모두 십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들이었다. 이 청소년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머물렀으나, 그들 조상들을 위한 침례를 받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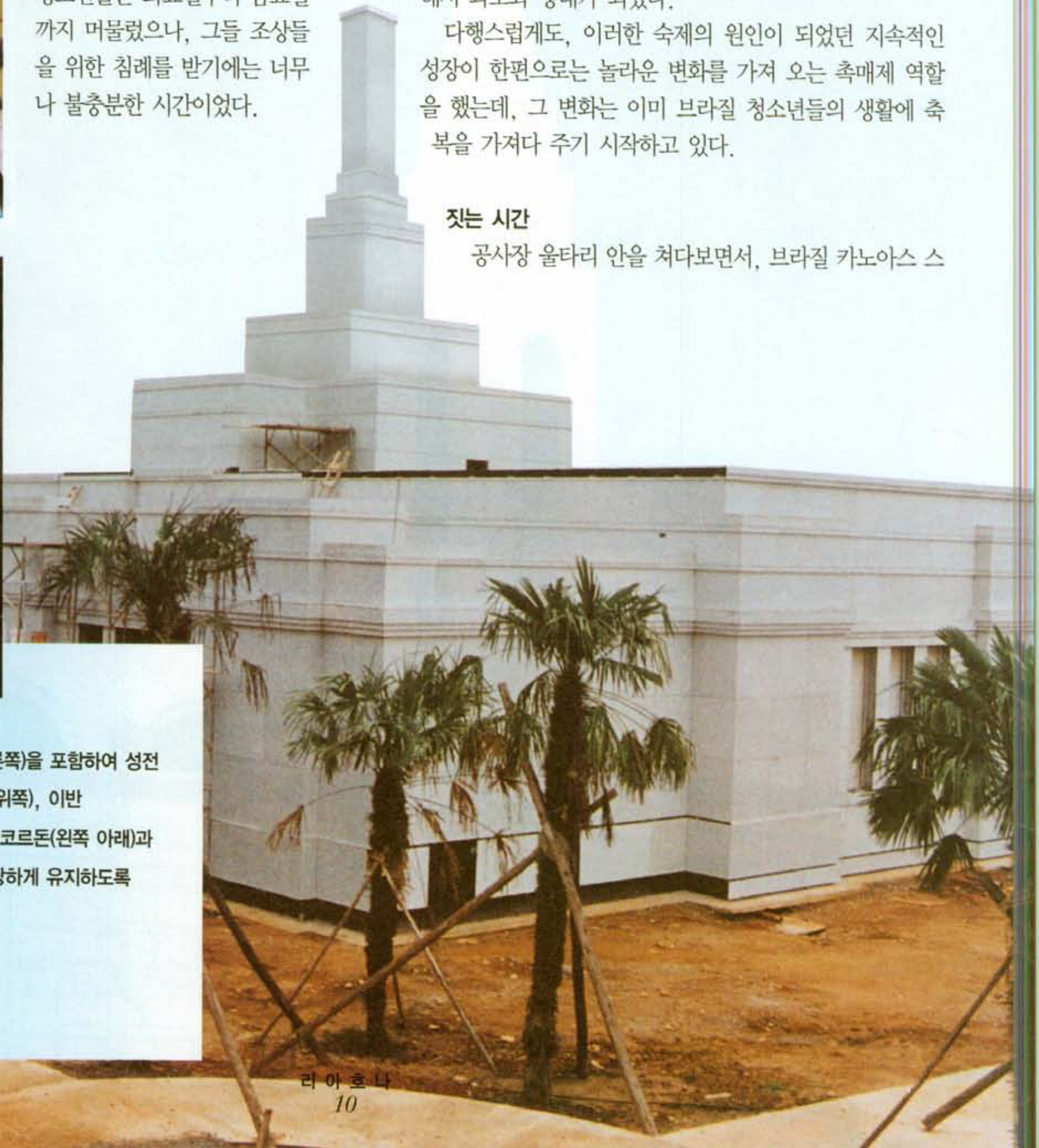
성전 침례실은 청소년 의식 참여자로 가득 차서 청소년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한 사람 당 단지 네 명 또는 다섯 명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만 침례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원거리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성전 여행을 위하여 여러 달 동안 돈을 저축하고 또 버스를 타고 여러 날을 걸려 상파울루에 도착한 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상파울루 성전이 1978년에 헌납되었을 때만 해도, 브라질에 있는 회원 수가 60,000명에 약간 못미쳤기 때문에 성전에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브라질에 있는 회원 수가 10배 이상으로 증가되어 언제인가부터 성전이 계속해서 과포화 상태가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숙제의 원인이 되었던 지속적인 성장이 한편으로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 오는 촉매제 역할을 했는데, 그 변화는 이미 브라질 청소년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고 있다.

짓는 시간

공사장 울타리 안을 쳐다보면서, 브라질 카노아스 스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성전(오른쪽)을 포함하여 성전 부지 방문은 파비오 포글리아토(위쪽), 이반 카르발로(가운데), 구일헤르메 레코르돈(왼쪽 아래)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스스로를 합당하게 유지하도록 동기를 주고 있다.

테이크에서 온 17세된 파비오 포글리아토와 그의 친구들은 작업모를 쓴 일꾼들이 브라질 남단에 가까운 곳에서 한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파비오는 한 일꾼이 작업 현장을 떠나서야 담배를 피는 모습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파비오는 이렇게 말한다. "그 일꾼은 이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울타리의 다른 편에서 장엄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이 도시를 배경으로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성전의 벽이 빨간 대지에서 우뚝 솟아있는 모습이 그것이다.

"일하시는 분들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저는 진실로 그것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라고 에스테이오 와드에서 온 14세 된 이반 카르발로 형제는 말한다. "성전은 제가 여기 와서 죽은 자와 제 자신을 위한 의식을 행하고 싶다는 느낌을 더욱더 강하게 갖도록 해줍니다."

에스탄시아 베라 와드에서 온 14세 된 구일헤르메 레코르돈 형제는 이렇게 덧붙인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300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대신에 겨우 20 킬로미터만 여행하면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여기에 매주 오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소년들이 갖는 느낌은 성전 건축이 진행됨에 따라 브라질 전역에서 날로 커져 가고 있는 기대와 흥분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하나의 성전이 캄피나스(상파울루의 서쪽에 인접한 도시)에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으며 또 다른 한 성전이 레시페라는 북부 도시에서 이미 헌납되었다. 교회가 브라질에서 여러 성전들을 건축함에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곳의 청소년들은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계속해서 성전이 눈에 보이도록 함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브라질 청소년들에게 쉬운 일만은 결코 아니다. 그들이 약물, 그리고 술과 담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하기도 한다. 지극히 무절제한 내용들을 게시판이나 시청율이 높은 시간대에 텔레비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음란 잡지를 학교로 가지고 오고 있다. 카나발(carnaval)이라는 일주일 동안의 축제가 브라질에서는 유명한데, 그 축제에서는 무절제하고 부도덕한 행진이 거리에서 벌어진다.

그러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그들이 부딪치고 있는 많은 유혹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모인호스 데벤토 스테이크의 자니세 피구에이로 (왼쪽) 와 브라질 캄피나스 스테이크의 마르쿠스 곤살베스 (아래쪽)은 브라질 레시페 성전을 포함하여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계명을 지키는 데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학교에서 우리가 [음란] 잡지를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놀립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로 봉사하고 또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강요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라고 브라질 캄피나스 스테이크의 캄피나스 제4와드에서 온 16세 된 파비오 마르케스는 말한다. "저는 이미 제 결정을 내렸어요."

파비오는 성전이 캄피나스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 세워지게 된 것이 그와 그의 말일성도 친구들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말한다. "상파울루에 있는 성전까지 여행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지만, 곧 우리는 죽은 자들을 위한 침례를 캄피나스 성전에서 보다 쉽게 그리고 자주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식을 행할 때마다, 성전으로 다시 오겠다는 그리고 성전에서 결혼하기에 합당하게 살겠다는 목표를 다짐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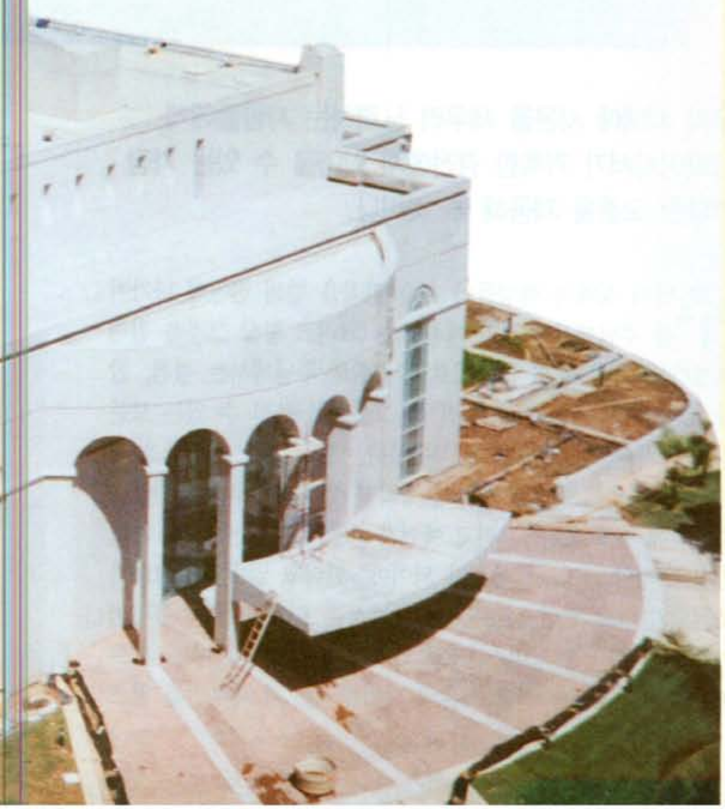
18세 된 자니세 피구에이로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그녀는 포르투알레그레 브라질 모인호스 데벤토 스테이크, 히기에노폴리스 와드의 그녀의 청녀 회장에게서 받은 빨간색 흙이 담긴 작은 병을 바라본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성전 부지에서 담아 온 흙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합당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들어갈 준비를 함

포르투알레그레 모임호스 데벤토 스테이크, 구아이바 자르딤 와드에서 온 14살 된 줄리아노 가르시

아는 그가 탔던 상 때문에 가슴이 설레였다. 회원이 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었지만, 그는 여러 스테이크가 합동으로 가졌던 한 세미나리 모임의 성구 찾기 활동에서 상을 받았다. 상으로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가 쓴 *거룩한 성전*이라는 소책자를 받았는데 그 책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성전의 침례탕과 해의 왕국실의 사진에 굉장히 마음이 끌렸다. 줄리아노는 성전에 관해 많이 알지는 못했지만, 그 소책자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에 관하여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조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다. "저의 조부모님에 관해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들을 위해 성전을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줄리아노는 상파울루 성전으로 여행을 해본 적은 없지만 포르투알레그레에 있는 성전에 갈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

줄리아노와 브라질의 십대 청소년들이 성전에 가기에 합당하도록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올바르게 해 나감에 따라, 새로운 성전들의 문이 열려질 때면 그들도 그곳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다. □



브라질 레시페 성전 사진 촬영: 라울 린스

자녀의 마음을 조상에게

1823년에 모로나이 천사가 당시 17세였던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을 때, 젊은 예언자에게 예언자 엘리야가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자녀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자녀의 마음을 그 조상에게 돌이키게 하리라."(요셉 스미스서 2:39)고 말했다.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브라질의 젊은이의 마음에서 성취되고 있다. 상파울루 성전장으로 봉사한 알레디르 바르보우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엘리야의 영이 …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쳐 그들로 하여금 조상들을 위한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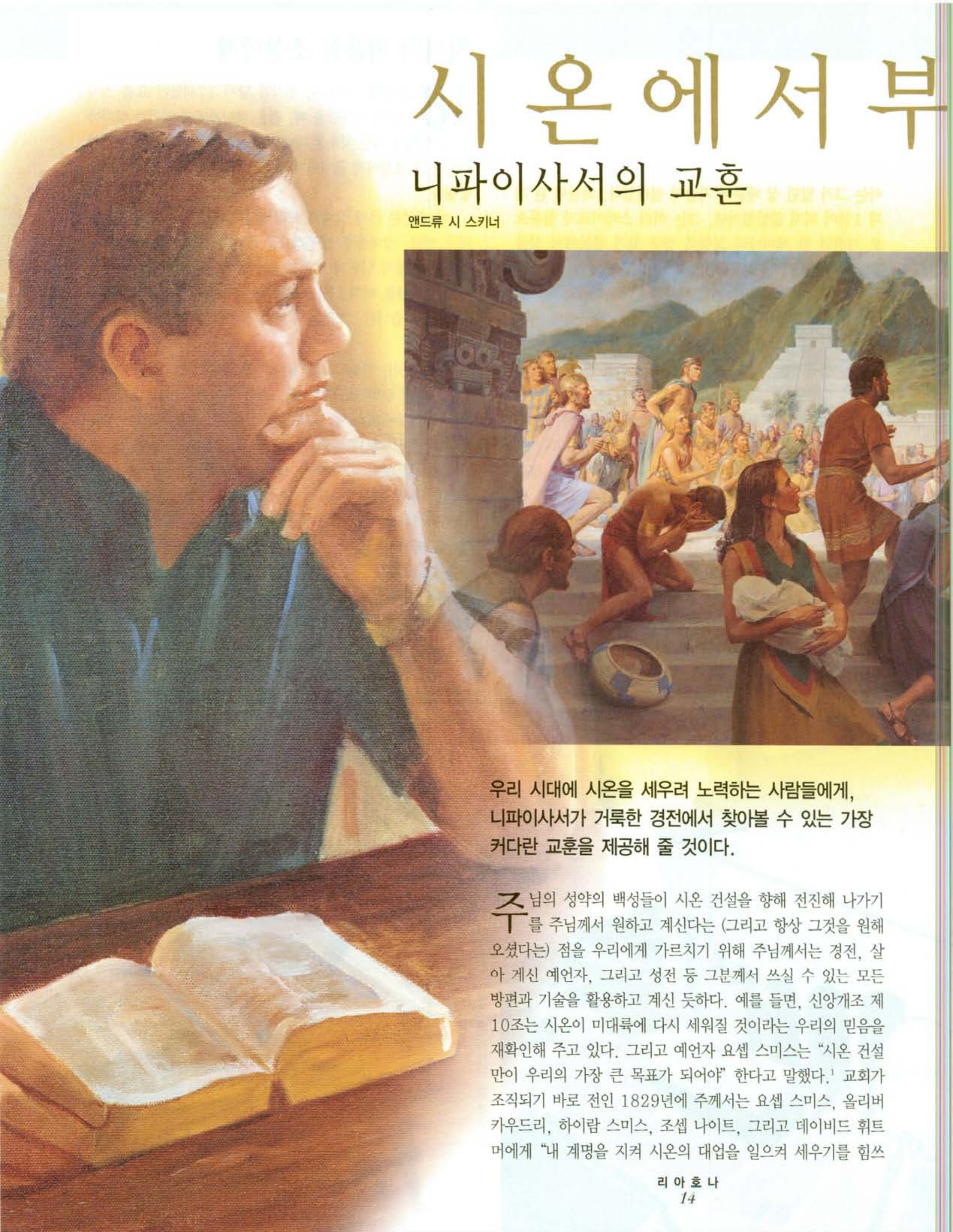
예를 들면, 카노아스의 제퍼슨 몬테네그루(17세, 아래 사진), 수엘렌 알렉산드레(15세), 조세 메이렐레스(18세), 프리실레 카발리에리(18세), 카를리타 포체토(14세), 그리고 상파울루의 카롤리네(16세)와 크리스티아네(15세)와 카를로스 로드리게스(12세)는 가족 역사 센터에서 매주 10시간 내지 20시간을 내어 자원 봉사자로 일하고 있다. 그들은 교회 회원들이 가족 역사를 탐구하는 것을 도와주고, 초출된 성명을 컴퓨터 시스템에 입력하며, 자신의 조상들의 성명을 알기 위한 탐구를 하고 있다.

이들 십대 청소년들은 평범한 아이들이다. 많은 브라질 청소년들은 수백 명의 조상들의 성명을 파악하여 그들을 위한 성전 사업을 열심히 해 오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퍼슨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엘리야의 영의 영향을 느껴요. 엘리야의 영은 제가 먼저 돌아가신 조상들과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

시온에서부

니파이사서의 교훈

앤드류 시 스키너



우리 시대에 시온을 세우려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니파이사서가 거룩한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교훈을 제공해 줄 것이다.

주님의 성약의 백성들이 시온 건설을 향해 전진해 나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그리고 항상 그것을 원해 오셨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주님께서는 경전, 살아 계신 예언자, 그리고 성전 등 그분께서 쓰실 수 있는 모든 방편과 기술을 활용하고 계신 듯하다. 예를 들면, 신앙개조 제10조는 시온이 미대륙에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그리고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시온 건설만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1] 교회가 조직되기 바로 전인 1829년에 주께서는 요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람 스미스, 조셉 나이트, 그리고 데이비드 휘트머에게 "내 계명을 지켜 시온의 대업을 일으켜 세우기를 힘쓰

터 멸망까지

라"(교리와 성약 6:6; 11:6; 12:6; 14:6 참조)는 권고를 주셨다.

시온에 관해 거룩한 경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묘사 가운데서도, 니파이사서에 있는 것만큼이나 교훈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다른 기사들보다도 더욱 자세하게 시온에 관해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원인으로 시온을 구성하는 사회가 그 종말을 맞는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시온의 원리

시온이라는 개념이 다중적이기는 하지만, 주께서는 적어도 세 가지 특성, 곧 청결, 단결, 평등이 시온의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1833년에 주께서는 커틀랜드에서 청결에 관해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시온은 기뻐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시온이니라. 그러므로 시온은 기뻐하라. 한편으로는 악인들이 애통하리라."(교리와 성약 97:21)라고 말씀하셨다.

구세주께서 문자 그대로 육신으로 니파이인들 가운데 계셨을 때의 권세와 영향력은 너무도 강력해서 그리스도의 방문 후 두 번째 세대까지도 시온의 원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생활했다.

1834년에 주께서는 시온에 관해 다시 말씀하시면서 단결과 평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다.

"그러나, 보라, 저들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 일 순종하기를 아직도 배우지 아니했고 도리어 온갖 악이 가득하며 성도로서 합당하게 저희 중에 가난한 자와 괴로움을 겪는 자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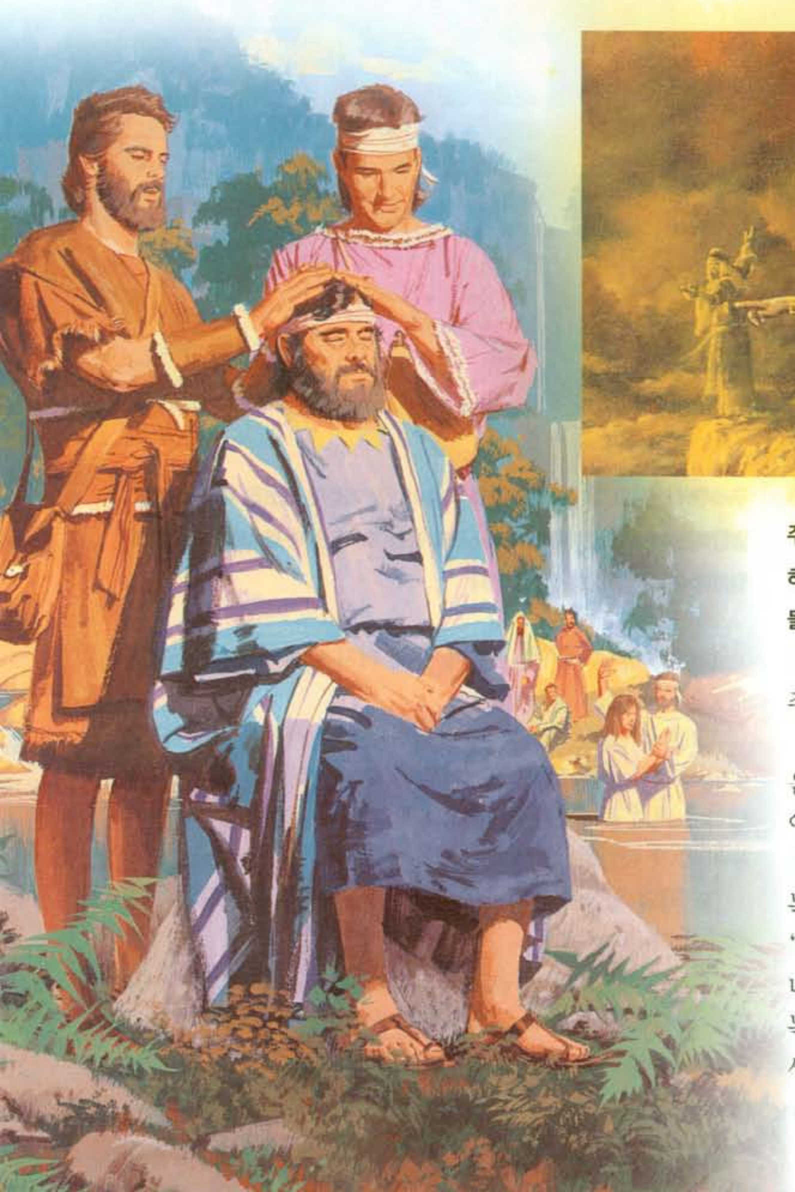
"또 해의 왕국의 율법이 요구하는 융화 단결에 따라 일치 협력하지 아니하는도다.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의 원리들)으로 …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05:3~5)

다른 곳에서 주께서는 "이는 만일 너희가 땅의 일에 평등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것을 얻는 일에도 평등하게 될 수 없음이라"(교리와 성약 78:6)고 말하셨다. 단결은 해의 왕국의 율법으로 해의 왕국이 운영되는 원리이며, 그것은 경제적 및 물질적 문제에도 적용이 된다.

지상에 시온이 세워질 수 있다는 개념은 하늘에 그 본보기가 되는 사회, 곧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가 되어 생활하고 있는, 승영에 이른 자들로 이루어신 하늘의 사회가 있다는 점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지상의 시온은 그 하늘 사회의 본보기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온 사회의 궁극적 운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사회를 그분의 면전으로 취하는 것인데, 이는 "시온은 해의 왕국의 율법(의 원리들로)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건설될 수 없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시온을 내게로 받아들일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05:5)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고대에 에녹성의 백성들은 시온의 원리에 따라 생활했으며 또



주께서 니파이인들의 신앙과 순종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셔서 번영케 하셨으나 그들이 받은 축복의 근원을 잊었을 때 이러한 부가 교만과 물질주의로 흐르게 되었다.

주께로 들리워 올라갔거나 승천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해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

"에녹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롭게 설교하기를 계속하니라. 에녹의 시대에 한 도시를 세워 거룩한 도시 곧 시온이라 칭했더라. "또 주께서 에녹에게 세상의 모든 주민을 보이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때가 지나매 시온이 하늘로 들리워 가더라. 주께서 에녹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나의 영원한 거처니라 하시니라."(모세서 7:18~19, 21)

이 구절들은 교리와 성약에서 시온을 논하고 있는 구절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청결, 단결, 평등의 원리를 똑같이 강조하고 있으며, 시온을 세우려는 시도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 시대 오래 전에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주께서는 우리 세계의 온 역사 속에서 내내 시온의 건설에 관심을 보여 오셨다. 대관장단 제2보좌였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1897~1988)은 "주님께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따라 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협동 교단을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에녹의 백성 가운데 협동 교단을 세우셨"다고 가르쳤다.[2]

니파이사서에 묘사된 시온

니파이사서에 묘사되어 있는 그 놀라운 시온 사회는 우리 주후 34년에서 36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서 미대륙에 세워졌다.[3]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 사회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다. 모든 사회적 발전과 선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중심을 두고 있었으며,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의 미대륙 방문으로 약 165년간 지속되었던 의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 모든 개인들이 완전히 개심해 구세주, 즉 그분의 생각과 모범적인 행동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니파이사서 1:2 참조) 이러한 개심은 회개를 통해 사람을 내적으로 변화시켰다.(1절 참조)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멜기세덱 신권을 통해, 특별히 성신의 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생명을 가져다 주며 새롭게 해 주는 의식들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1절 참조)

성신이 이러한 사회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미친 영향의 자연스런 결과로 그들은 서로를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공유했으며 또 모든 행동은 구세주의 모범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주께로의 이러한 완전한 개심은 다툼을 없애 주고, 비이기적인 자기 통제를 가능하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및 정치적 평등과 자유를 가져 왔다.

"모든 것을 공유했으니"라는 경전상의 표현은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곤 했다.(사도행전 2:44; 4:32; 니파이삼서 26:19; 니파이사서 1:3 참조) 그러나 이러한 체제가 "기독교적 공산주의"의 전형은 *아니었다.*[4] 이러한 협동 교단에 속한 성약의 모든 구성원들은 얼마간의 사유 재산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정당한 "부족"과 "필요"에 따라서 헌납된 잉여물을 얻을 수 있었다.(교리와 성약 82:17~18 참조)

니파이사서에서 시온에 관한 몰몬의 묘사 가운데서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그 땅에 다툼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며, 그는 이 점을 네 번씩이나 언급했다.(2, 13, 15, 18절 참조) 그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한 문명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그 문명에는 니파이인도, 레이맨인도, 또는 어떠한 종족도 없고 다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깃들었기 때문에(15절 참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17절 참조)

다툼에 관해 앨마의 기록에서, 그리고 힐라맨과 니파이의 기록에서 많은 것을 읽었으며, 또 스스로의 일생 동안에 직접 내란을 경험했던 몰몬은 어느 면에서는 다툼에 관해서는 전문가라 할 수도 있었다. 그 사회에서 살고 있었고, 구세주의 방문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단결은 몰몬이 기록한 니파이인 역사의 파노라마적인 기사에서 하나의 놀랄 만한 사건이었다.

니파이사서에 묘사된 사회 구조는 가난과 이기심을 포함해 파괴적이거나 분열적인 요소들이 전혀 없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계급이 없는 사회로 이어져서 범죄가 없어지고 또 사회의 자원들이 도시 재개발에 이용될 수 있었다.

"주가 저들을 땅에서 크게 번영케 하신지라, 저들은 불탄 자리에 다시 성읍을 지었고,

"저 큰 성 제이라헤믈라도 다시 짓게 했으나 …

"시기나 분쟁이나 폭동, 음행, 거짓말, 살인 등 온갖 음란한 짓을 범치 아니했으며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7~8, 16절)

오직 그리스도에게로서의 참된 개심과 그분의 가르침에 엄격히 따름으로써 중요하고 지속적인 변화와 재건을 백성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1899~1994)은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부터 안으로 역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민가에서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서 빈민가를 없애셔서 그들이 스스로 빈민가를 빠져 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그들을 변화시키려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그들의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행동을 바꾸려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5]

니파이사서에 묘사된 사건들의 형태가 바로 벤슨 대관장이 언급한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사회적 및 경제적 개혁, 사회 에너지의 재충전, 그리고 사회 재개발에 더해, 니파이사서의 백성들은 더욱 건강, 힘, 활력을 누렸는데, 이에 관해 경전에는 "이제 보라 니파이 백성들이 강대해지며 크게 번성하고 심히 아름답고 복된 백성이 되어"(10절)라고 기록되어 있다.

니파이사서의 그리스도 중심의 사회에서, 백성들은 또한 생과 사를 주관하는, 곧 죽은 자를 일으켰던 필멸의 메시야의 절대적 권세를 상징하는 기적들을 포함해 풍성하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목격했다. 그리고 이 종교적 사회가 본질적으로 그 중심을 그리스도에 두고 있다는 표시로 모든 기적들이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5절) 행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니파이사서에 묘사된 시온의 성약 사회는 몰몬경 내내 수없이 반복된 예언 곧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다. 니파이사서에서 부활 이후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에 관해 몰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께서는 "저들이 행하는 대로 낱낱이 축복"하셨다.(18절)

배도

니파이사서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던 해의 왕국의 질서에서의 이탈과 그 질서에서의 모반이 갑자기 일어났던 것은 아니다. 구세주께서 문사 그대로 육신으로 니파이인들 가운데 계셨을 때의 권세와 영향력은 너무도 강력해서 그리스도의 방문 후 두 번째 세대까지도 시온의 원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생활했다. 그러나 서기 194년 이전의 어느 시점에 사회적 및 종교적 분열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19~21절 참조) 비록 이러한 분열이 단지 당시 인구의 적은 부분에만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 사회에서의 그러한 분열의 심각성이 과소 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분열은 의식적인 모반의 결과였다. 몰몬은 "무리가 … 모반해 교회를 떠나 스스로 저들을 레이맨인이라 칭[했으며] … 이 일로 해 레이맨인이 다시 땅에 생기더라"(20절)라고 기록했다.

*Apostasy(배도)*라는 단어는 *apostasia*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으며 문자 그대로는 "어떤 것에서 떨어져 있다", "반역하다" 또는 "모반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배도는 구세계에서 구세주께서 부활하신 이후 그분의 제자들을 방문하신 다음에 신약 성서 시대에도 일어났다.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것으로 서기 1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던 구세계에서의 대배도는 우리가 니파이사서의 백성들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사도행전 20:29~30)

여기서 이러한 배도적인 행위를 니파이이서 26장 29절 "하나님의 일을 금전으로 행하는 자는 나아가 가르치며 저들 스스로를 세상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어 세상의 칭송과 유익을 구하며 시온의 복리를 구하지 않는 자라"는 구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일을 금전을 받고 행하는" 자와 즉시 관련지어 볼 수 있다.

구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이 신세계에서도 있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을 금전을 받고 행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몰몬은 그 점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마음을 강퍅하게 먹어 많은 제사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끌려 교회를 많이 짓고 온갖 간악한 일을 행하면서 예수의 백성들을 치나 예수의 백성들은 저들을 대적해 마주치지 아니했으니 이같이 불신앙과 완악함에 빠져 한 해 한 해를 지내는 중에 이 백 삼십 년이 지나더라."(니파이사서 1:34)

몰몬은 배도와 하나님의 일을 금전을 받고 행하는 자들을 청결한 사회에 심각하게 큰 해가 되는 다른 두 가지 악과 연결시켰다. 그것들은 교만과 사회 계층의 계급화로 그것들은 몰몬이 처음으로 초기의 분열을 지적한 이후에 십년이 채 지나지 않았던 서기 201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들

의 신앙에서 기인했던 니파이 백성들의 번영은 결과적으로 매우 큰 부를 대중들 사이에 가져다 주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부가 교만과 물질주의로 이어졌을 때 백성들은 *그들이 지닌 힘의 근원을 잊었다.* "그때로부터 저들은 재물과 소유를 다시는 공유로 하지 아니했"던 것이다.(니파이사서 1:25)

여기서 교만의 해로운 본질이 확연히 드러나고 또 그것이 시온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이 명백해진다. 교만은 단합을 파괴하고 또 이기심을 부추긴다. "교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6] 교만은 백성들 가운데 분열을 조장한다.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높은 곳에서 그들을 이용하고 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대에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지 못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니파이인들 간에 헌납이 종말을 가져 왔던 것도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

"교만은 시온에 큰 장애물입니다."[7]

여기에 오해란 있을 수 없다. 교만은 니파이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사회 계층의 계급화의 뿌리였다. 이 죄는 또한 니파이인 역사의 초기 시기에도 문제였다. 힐라맨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 커졌는지를 묘사했다. "보라 주께서 저들을 오래도록 세상의 재물로 축복하시매, 서로 노여움을 품었으며 전쟁을 일으키거나 유혈을 초래치는 아니했으나, 마음을 재물에 두고 재물을 남보다 더 얻어 더욱 뽐내려 하기 시작한지라."(힐라맨서 6:17)

몰몬 또한 신속하게 사회 계층의 계급화를 하나님의 일을 금전을 받고 행하는 자들이 목적하는 것으로 연관지었다. "계급이 생기게 되어 교회를 짓되 저들의 이익을 위해 짓기 시작했으며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인하기 시작해"(니파이사서 1:26) 라고 기록했다.

참된 교회에 대한 반대가 더욱더 커져 신성한 것들, 특별히 구원의 의식(27절)을 더럽혀 모독하는 일을 초래했다. 서기 211년에는 이러한 죄로 인해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크게 사로잡을 기회가 마련되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사람들은 커지는 반대로 고난을 겪었으며, 그것은 박해로 이어졌다. (29~33절 참조)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모반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몰몬이 요약한 기록은 일단 사회 계층간 분열이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단결된 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는 음울한 미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분열은 또 전쟁과 파멸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증오하도록" 가르쳤다.(39절)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몰몬이 영감을 받아 요약한 기록은 우울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다. 이 문명의 몰락이 더욱더 그 속도와 기울기를 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사회가 분열되어 계급화가 됨에 따라 돌이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눠어지게 되었다. 서기 231년에는 몰몬이 이른 바 "백성들이 크게 나뉘"는 일이 일어났다.(35절) 우리는 이 일을 신세계에서의 종족적 배도 단계라 지칭할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니파이인, 야곱인, 요셉인, 조램인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예배를 지키려 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레이맨인, 레뮤엘인, 이스마엘인들이 "고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했다.(38절)

결과적으로 한때는 청결하고 또 목가적이었던 사회의 백성들의 거역은 비밀 결사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간악한 백성들은 또다시 개다이앤톤의 은밀한 맹약과 결사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42절) 그리스도가 오시고 삼백 년이 지났을 때, 사탄의 권세가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배하게 되어서 "니파이 백성들이거나 레이맨 백성들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같이 심히 간악해"졌다.(45절)

몰몬의 영감적인 시각으로 해의 왕국의 사회의 몰락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러한 쇠망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진전되었으며, 각 단계는 그 백성의 청결성, 하나됨, 그리고 평등성을 파괴했던 것이다. 미대륙에 있던 시온의 파멸에 관한 이러한 파노라마적인 조망은 몰몬경의 시작 부분에서 니파이가 행했던 예언을 확인하고 설명해 주고 있다.

"보라 그 날에 [사탄이]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해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파이이서 28:20~21)

니파이사서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봄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성도들은 니파이사서에 있는 시온의 묘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것은 시온이 세워지기 위해 꼭 존재해야 할 조건들에 관한 가장 상세한 기사이다. 슬프게도 그 기록은 또한 시온을 멸망시키는 배도의 기본적인 형태를 밝혀 주고 있다. 니파이사서를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초대 니파이가 오래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니파이일서 19:23)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의문의 여지 없이, 사탄이 니파이인 사회를 멸망시켰던 모든 악의 중심에 있었다. 사탄은 사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고무시켜 의에 대적하게 했으며 또 그의 어두움의 왕국의 맹세와 성약을 만들어내고 집행했다.(힐라맨서 6:26 참조) 그러나 만일 니파이사서의 백성들이 먼저 서곡을 울리지 않았던들, 사탄은 그들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력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외면하는 순간에 악마가 권세를 취합니다."[8]

니파이사서의 백성들은 거역이라는 죄를 지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빛과 진리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꼭 일어날 필요는 없었다. 그것은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다. 예언자 요셉은 "모든 인간은 악마를 이길 권세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9]

일단 니파이사서의 백성들이 거역을 하고 사탄이 권세를 부리자, 냉엄하게도 몰몬의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로써 사람이 한 때 성령의 빛을 받아 의로움을 배운 후 죄를 짓거나 범법하게 되면 전보다 더욱 강퍅하게 되며, 저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던 때보다 더욱 비참해짐을 분명히 알 수 있느니라."(앨마서 24:30)

이 말일에 주께서는 시온을 세우는 것의 유익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러나 시온은 오직 니파이사서에 묘사된 원리들에 따르고 또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의식적으로 행함으로써 세워질 수 있음을 경전은 가르치고 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1895~1985)은 "시온의 건설은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했다.[10]

그는 나아가 이렇게 말씀했다. "시온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 가운데에서만 세워질 것입니다. 참으로 욕심이나 탐욕으로 분열된 백성이 아닌 청결한 마음을 가진 이기심없는 백성 가운데에서만 시온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외견상으로 청결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시온은 세상적인 안락에 대한 만족감으로 무뎌지거나 물질주의로 인해 마비되어 버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

"…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을 드림으로써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명된 임무와 부름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수행함으로써 이에 따릅니다. 우리는 의무를 배워 완전히 수행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지도자의 요청에 따라 또한 성령의 속삭임에 의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헌납해야 합니다."[11]

주께서는 시온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한 청사진으로서 경전을 우리에게 주셨다. 만일 우리가 니파이 사서에서 주어진 원리들을 연구하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또 시온의 백성들이 범했던 비극적인 실수를 피하게 될 것이다. □

주

1.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157쪽.

2. "교회 복지 사업의 목적",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97쪽.

3. 니파이사서의 서두에 언급되어 있는 서기 34년과 36년이라는 일자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기원전 1년에 있었다고 가정한 것이다.

4. *The Doctrine and Covenants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1981), 425쪽.

5. "하나님께로 태어남", *성도의 벗*, 1986년 1월호, 6쪽.

6.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6쪽.

7.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8쪽.

8.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77~178쪽.

9.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5쪽.

10.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 *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125쪽.

11.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됨", *성도의 벗*, 1978년 10월호, 126~127쪽.

니파이인들을 멸망시켰던 유혹을 우리가 이긴다면 니파이사서에 나타난 본보기가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 그리고 재물을 헌납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랜스 비 위크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작품입니다. 마치 흠 없는 화강암 덩어리 앞에 선 조각가처럼 여러분은 훌륭한 기회라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청남 청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시작 단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단순히 직업에 관한 것입니까?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은 그 안에서 미래의 회계사나 법률 담당 비서, 또는 실내 디자이너를 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비전은 그보다 더 웅대한 어떤 것입니까? 거울을 보거나 눈을 감았을 때, 여러분은 마음의 눈으로 자신이 만들고 있는 고귀하고 존엄한 인물을 봅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왕족의 상속권을 지닌 자로서 인류 복지와 하나님 왕국 건설에 큰 기여를 하는 어떤 사람을 봅니까? 10년, 30년, 아니 50년 앞을 내다봅니까? 그 때의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여러분에게 있어 대단히 긴박한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흠 없는 화강암 덩어리 앞에 선 조각가처럼 여러분은, 다시는 이와 같은 상태로 주어지지 않을 신선하고 깨끗하며 위대한 선물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대한 기회의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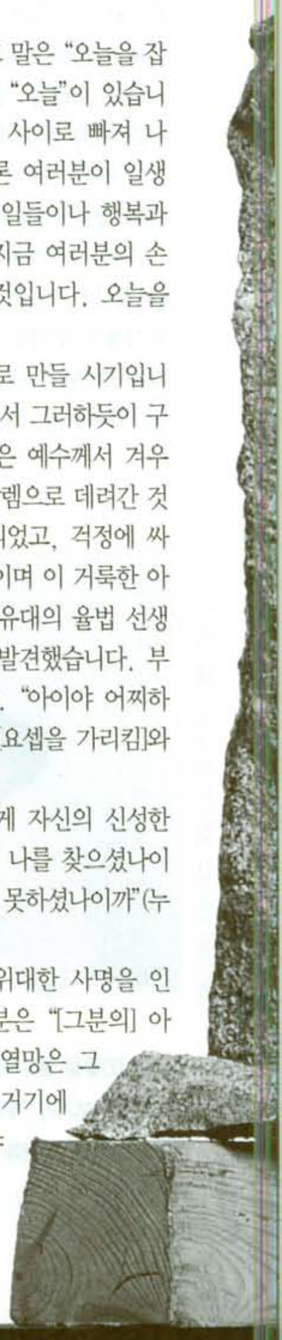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는 젊음의 활력이 넘치고 의무가 거의 없는, 축복 받은 위대한 기회의 시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란 사라지기 쉬운 일회용품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오늘 여기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것입니다.

라틴어에 *카르페 디엠*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을 잡아라"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손이 미치는 곳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나 "붙잡지"않는 한,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는 모래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일생 동안 태양은 매일 아침 떠오를 것이며, 좋은 일들이나 행복과 같은 기회는 매일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오늘"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오늘을 *잡으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을 멋진 예술 작품으로 만들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모든 일에서 그러하듯이 구세주의 삶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겨우 열두 살이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고, 걱정에 싸인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사흘 동안을 마음 졸이며 이 거룩한 아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그들 부부는 성전에서 유대의 율법 선생들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부드럽게 질책하며 어머니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요셉을 가리킴]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똑같이 부드럽게 자신의 신성한 신분을 상기시키면서 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누가복음 2:48~49)

어린 아이였음에도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위대한 사명을 인식한 데서 비롯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의 집에 있"기를 열망하고 계셨으며 그 열망은 그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가르침은 없었습니까? 야곱의 놀라운 표현을 빌리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명을 얻어" 받은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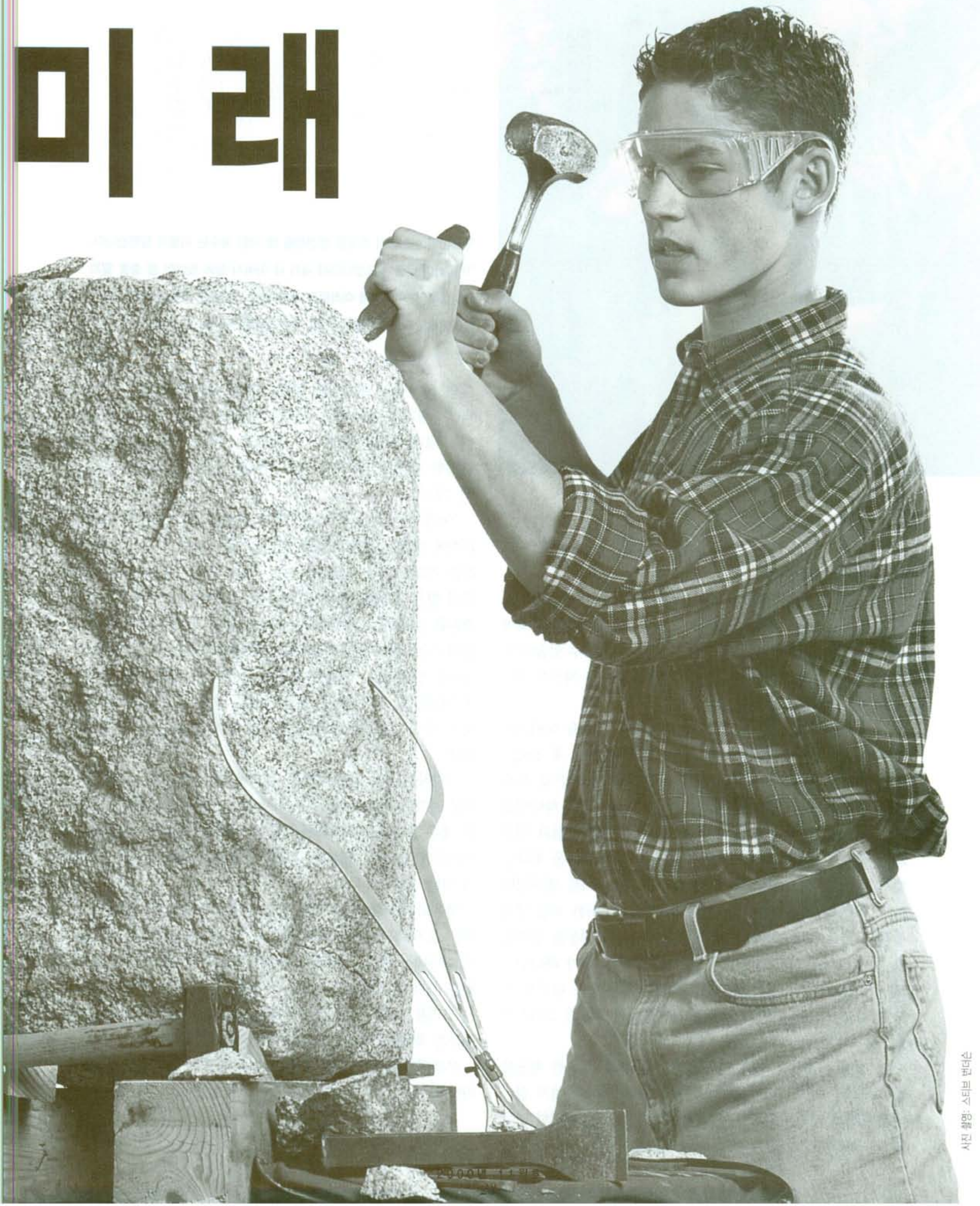


사진 촬영: 스티브 번더슨

그림: 하인리히 호프만, *성전에서의 그리스도*의 일부

다.(야곱서 1:17 참조)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지금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태어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면서 분명히 앞으로 우리가 되어 갈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요셉 스미스도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애석해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명을 받은 후의 젊은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첫번으로 시현을 본 후 1823년에 이르기 까지는 … 나는 온갖 유혹에 빠지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과 휩쓸렸으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종종 하나님을 거슬리는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여 젊은이로서의 약점과 인간의 결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큰 죄나 증오할 만한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나에게는 이러한 죄를 범할 성질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경솔한 행동을 범하였고 어떤 때에는 명랑한 무리들과 어울려 앞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같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당연히 지녀야 할 성격과는 모순된 행동을 하였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28)

이 말이 여러분의 귀에 익숙하게 들립니까? "경솔한 행동을 범"하거나 "명랑한 무리들과 어울"렸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들을 범해 왔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것들이 "큰 죄나 증오할 만한 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성전에서 주님을 발견했을 때 어린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거기에 여러분과 저를 위한 가르침은 없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의 명을 얻어" 받은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행동은 아닙니다. 수세기를 내리 울려 퍼지는 바울의 위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린도전서 13:11)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놀라운 기회로서의 "오늘"을 보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받은 교육을 가장 잘 이용할 날이며,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교회 부름과 임무를 영화롭게 하는 날이며, 자신을 뒤로 제쳐놓고 그리스도교인으로 봉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나무 망치와 조각칼을 들, 즉 올바른 결정과 굳은 결심을 할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의 집에 있기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으십시오! 바로 가까이에 있는 놀라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진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여러분이 최고의 오늘을 만드는 한, 참으로 밝게 빛날 것입니다.

복음의 특이할 만한 점은 내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거룩한 성전은 그 약속의 위대한 상징입니다. 성전의 영원한 의식과 성전이 나타내는 진리 - 이러한 것들이 현세와 영원을 통해 내일에 빛을 가져 올 것입니다.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내일을 사두셨습니다. 성전은 충만함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오늘을 붙잡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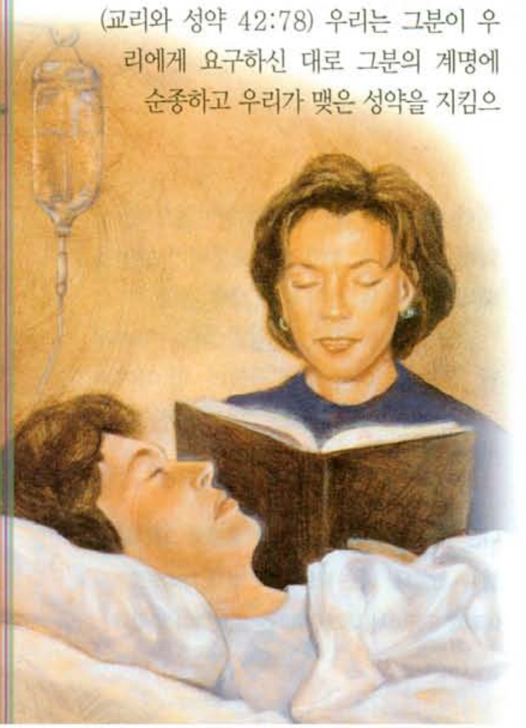
1998년 11월 4일, 말일성도 실업 학교 예배 연설에서 행한 말씀.

우리의 성약을 지킴으로써 구세주를 영광스럽게 함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견줄 데 없는 은사는 우리를 영원히 그분께 빚진 자가 되게 한다.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과 무한한 자비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이다.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체적 사망을 극복했고,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의 의식을 받는다면, 영생을 상속 받게 되었다.

성약을 맺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구세주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보이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이 교회에 속한 자는 다 교회의 계명과 서약을 모두 지켜 준행해야 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42:78)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구세주를 영광스럽게 한다.



침례를 시작으로 우리들 각자는 주님과 개인적으로 굳은 성약을 맺는다.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약속된 특정한 축복을 받게 된다.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시편 89:34)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회개하며, 우리를 용서하고 승영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서 성약을 맺는 자일 뿐만 아니라 성약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지킬 성약

보니 디 파킨 자매는 본부 청녀 회장단의 보좌로 있을 당시에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침례식에서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모사이야서 18:8~ 9)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더욱 순종하고, 희생하며, 순수하고 합당하게 우리 자신을 지키며, 진리를 선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순결하고, 기도하고,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영원히 충실할 것을 성약합니다."(*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77쪽)

벨기에의 앤트워프 스테이크, 세인트 니클라스 지부의 두 회원은 이 복음 성약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보여 준다. 지니 크래트는 약 25년 전에 교회에 들어왔다. 그녀의 충실한 봉사는 극도의 시련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었는데, 크래트 자매의 간증을 들은 후 침례 받은, 이웃 파울라 비스도 그들 중 한 사람이다. 여러 해 뒤에 크래트 자매는 뇌출혈로 혼수 상태가 되었다.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던 비스 자매는 크래트 자매 곁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책을 읽어 주며, 노래도 불러 주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마침내 크래트 자매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으나 부분적인 마비 증상을 갖게 되었을 때 비스 자매는 그녀를 도우며 간호했다. 크래트 자매는 말하는 능력을 천천히 회복해 갔다. 교회로 돌아온 첫 일요일에 크래트 자매는 간증을 했다. 휠체어에 앉아 지내야 하지만 그녀는 주님의 축복에 감사하며, 병에서 회복하여 봉사를 계속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간구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그분과 맺은 성약을 지킬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는 구세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강화시켜 주실 것이다. □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 우리는 신앙에 대해 배운다. 우리는 이 지상에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 알던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약점과 이루지 못한 소망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주 힘겨워한다. 우리는 어렴풋이 반쯤 보이는 진리가 완전하게 보이는 더 충만한 빛이나 상처 받은 몸과 영혼을 치유해 줄 신성한 손길을 원한다. ❦ 그러한 갈등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권고는 희망과 치유의 위안을 준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요한복음 20:27)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즉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우리 영혼의 아버지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의 왕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요, 구세주요,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기적적이고 놀라운 방법으로 지상에 오게 된 회복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회복에 대한 생생하고 힘찬 간증을 마음속에 키우십시오. 몰몬경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신권이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거룩한 혈통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시오."(1998년 2월 20일,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모임에서) ❦ 다음의 기사에서 회원들은 "믿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을 때 받은 축복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딸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빅토리아 이콩

우리가 침례 받은 몇 달 후에 남편과 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역경을 겪었다. 우리가 가장 괴로워하던 시련들은 우리 아이들에 관한 것이었다.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주가 한 주도 없는 듯했다.

이 시련은 거의 2년이나 계속되었다. 나이지리아의 공무원인 우리의 수입은 의료비로 달아났다. 재정적인 압박이 너무 커서 남편과 나는 단지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가진 것의 대부분을 팔아야 했다. 심지어 나의 옷가지들도 팔아야 했다. 우리는 일해서 마련했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 중 어느 것도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지부에서 활동적인 회원이었으며, 성약에 충실했다. 일요일에 교통비가 없었을 때에는 우리는 걸어서 교회에 갔다.

그러던 1997년 12월의 어느 저녁에 딸, 프리실리아가 병에 걸렸다. 딸 아이는 고열에 시달렸고 입으로 피까지 쏟기 시작했다. 남편은 집에 없었고 나는 겁에 질

나는 딸 아이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나는 딸을 등에 업고 가까스로 아파트 3층에서 내려왔고, 큰 도로까지 나왔다.

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는 딸아이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감지할 수 있었다.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성령은 내게 딸을 우리 집에서 먼 곳에 살고 있는 지부장에게 데려가라고 속삭였다. 나는 딸을 등에 업고 가까스로 아파트 3층에서 내려왔고, 큰 도로까지 나왔다. 너무 늦은 시각이라 버스를 탈 수 없어 택시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다.

우리 옆을 지나가는 첫 번째 택시 기사는 "죽은 사람을 내 차에 태우고 싶지 않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그러나 두 번째 택시 기사는 내가 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간청을 들어 주었다. 지부장의 집이 있는 아파트 구내에 도착하자 입구에 있던 경비가 우리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는 지부장에게 전화를 했고, 지부장은 밖으로 나와 프리실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옮겼다. 지부장은 딸아이를 의자에 눕히고 그 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다. 나는 지부장이 한숨을 내쉬고 잠시 말을 멈추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지부장은 프리실리아에게 아직 집으로 갈 때가 아니니 살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축복이 끝난 직후, 프리실리아가 눈을 떴다. 우리는 그 애를 병원에 데려갔고, 그 애가 말라리아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다. 또 이 병으로 그 애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8일 동안 프리실리아는 혼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의사들은 그 애가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다.

프리실리아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퇴원하던 날, 의사는 그 병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살아 남은 사람들은 불구가 되었다. "프리실리아는 운이 좋은 아이예요."라고 의사가 말했다. 그러나 나는 딸의 회복이 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프리실리아는 신권의 권세에 의해 살게 된 것이다.

지금 프리실리아는 건강하고 행복한 소녀이다. 프리실리아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래 하루도 아픈 적이 없었다. 그 애는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딸이다. 게다가 우리 가족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병들도 사라졌다. 우리는 이 오랜 시련들을 잘 견뎌 내었으며 진실로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 형제님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릴 제이 우드베리

정확히 말해서 그녀의 질문은 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상 밖의 것이었다. 성전 인봉 의식에 참여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눈이나 샹들리에 등등에 관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 그 젊은 여성은 나를 돌아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형제님은 얼마 동안이나 인봉자로 계셨어요?"

그 젊은 여성의 표정이 밝아졌다. "제가 부모님에게 인봉되던 날은 저에게 있어 영원의 시작이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19년째입니다."라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형제님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처음에 나는 뭐라고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동안 나는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어 가능한 답을 모색했다. 이렇게 말할까도 생각해 보았다. "저는 이곳 성전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온전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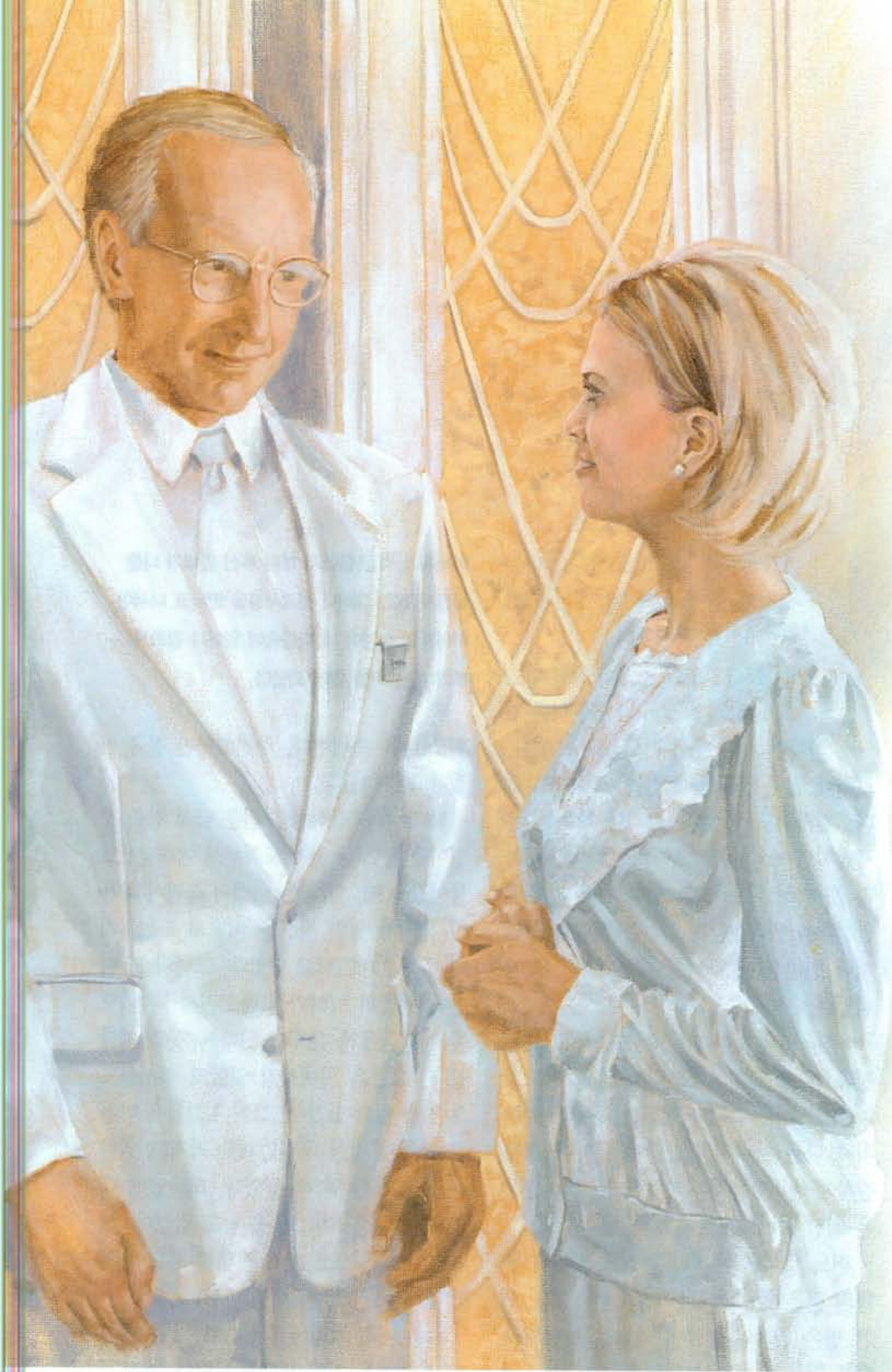
이런 답도 생각했다. "저는 의식 그 자체가 단순하고 고풍스럽고 심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나는 그녀가 내 경험의 본질에 대해 묻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해 줄 낱말들을 찾았다.

"저는 영원함의 기초가 가족이란 것을 배웠어요. 교회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꼼짝도 않고 앉아 있었다.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은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지요. 그 의식들은 가족 관계가 영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전에서 저는 가족과 사랑이란 말이 동의어라



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내가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나는 말해 주었다.

그녀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어 나는 되물었다. "자매님이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잠시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저는 형제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가족이 있기에 교회와 성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가족을 위해서죠."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물었다.

"저의 아버지는 저에게 잘해 주셨지만 어머니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제가 열세 살 때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저는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복음이 저를 찾은 거죠."

그녀의 표정이 밝아졌다. "몇 달 전에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성전 사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영원히 인봉했어요. 처음으로 저는 온전함을 느꼈어요. 제 가족에게 인봉된다는 것을 알면서 저에게는 있을 자리가 생겼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인봉되던 날은 저에게 있어 영원의 시작이었어요. 이 성전에 있으면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나는 그 자매님의 미소 띤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내 눈에 고인 눈물 사이로 그녀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 이제 나는 성전에 갈 때마다 그 자매님의 얼굴과 우리 가족을 영원히 인봉하는 영원한 축복에 대해 생각한다.

내 아버지의 신앙

마크 디 크리스천슨이 들은
리카르도 에노히의 이야기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일본에서 태어나셨다. 그들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브라질로 오셨고, 나는 포르투갈 말을 하면서 자랐다. 부모님은 내가 7세 때 이혼하셨다.

많은 젊은이들처럼 사춘기 시절, 나는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자주 다투었으며,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아버지가 역경 중에서 보여 주신 인내가 나를 감동시켰다. 그러나 선교사들을 만나고 나서야 아버지의 신앙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강하게 뿌리내렸는지를 알게 되었다.

도 자주 다투었다. 나쁜 습관들도 갖게 되었다. 15세에 술과 담배를 시작했고 17세에는 마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재미를 찾아다녔고, 어떤 일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있었지만 난 혼자라고 느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다.

나에게 그런 외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보여준 분은 바로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앙을 지니신 기독교인이셨다. 어느 날 아버지는 병으로 반신불수가 되셨고 의사는 아버지에게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일주일 후에 혼자서 벽을 잡고 걷는 노력을 시작하셨다. 아버지는 내게 "자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분의 도움만 있으면 내 문제는 극복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셨나. 아버지의 말씀은 나를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내렸음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아버지가 다시 걷기 시작한 얼마 후에 나는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어머니는 일본으로 돌아가셔서 후쿠이시의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편지에 "일본으로 오너라. 일자리를 마련해주마."라고 쓰셨다. 나는 조상의 땅에 살게 된 것이 기뻤고 가기로 결심했다.

1992년 그 곳에 도착한 나는 그 나라의 발달된 기술과 다른 편리한 환경에 흥미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많은 새로운 도전들을 맞아야 했다. 일자리도 얻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 사람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말을 하지 못했다. 나는 일본 말을 배우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인내심 있게 나를 대해 준 것은 아니었다.

나의 기독교 배경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규적으로 교회에 나가거나 성경책을 읽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와 마주치자 나는 아버지의 신앙이 얼마나 그를 강하게 해주었는지를 기억했다. 나의 생각은 점점 하나님께로 향했다.

어느 날 후쿠이 시내를 걷고 있는데 두 명의 젊은이가 내게로 다가왔다. 그들 중 한 명은 일본인이 아닌 것으로 보였지만 일본 말로 자신을 소개했다.

나는 "죄송하지만 전 일본말을 잘 못하는데요. 영어 할 줄 알아요?"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이죠! 전 미국인이에요."라고 대답했다.

그 젊은이는 내가 학교에서 배운 언어인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과 그의 동반자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교회로 나를 초대했다. 주저했지만 결국 가겠다고 동의했다.

내가 처음 참석한 모임은 금식 간증 모임이었다. 조금 늦게 도착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을 때, 한 젊은 여성이 울면서 복음이 문제가 있던 자신을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와 또 다른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았고 자신들도 그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 깊은 곳에 강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돕고 있었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 어쩌면 내 문제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계속 교회에 참석했고, 종종 거기서 배운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몰몬경도 읽었다. 어느 날 나는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참된 것인지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는 권유를 받아들였다. 기도했을 때,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강력한 무엇인가를 느꼈으며, 나는 '이것이 옳은 길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제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계속 기도하며 교회에 참석했을 때 성

령은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 마침 내 장로들에게 토론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따르고 언젠가는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나는 1993년 6월 21일에 침례를 받았다.

일본 생활의 여러 문제점들과 마주치는 가운데 나는 교회 회원으로서 새로운 힘을 찾았다. 열심히 준비한 뒤에 선교사 부름도 받았다. 놀랍게도 내가 봉사하도록 부름 받은 곳은 브라질의 상파울루였다. 나의 조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신이 났다.

나의 옛 생활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그때 내가 얼마나 눈이 멀었던가를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인생에서 옳은 길, 또는 그른 길로 갈 수 있다. 처음에 나는 그른 길을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을 따를 준비는 되지 않았었다.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고 이제 나는 우리의 구세주를 따르는 것이 참되고 유일한 행복임을 안다. □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을 공경합니다. 아버지의 면전에 있는 영광을 버리고 약속된 메시야로 지상에 강림하셨던 분은 바로 아버지의 장자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멸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지금도 그렇습니다."[1]

몰몬경: 또 하나의 성약

"몰몬경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또 하나의 성약으로 믿으십시오. 이 책은 세상에 주님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간증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주님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다시 간증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성경은 구세계의 성약입니다. 몰몬경은 신세계의 성약이며 그 두 책은 서로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저는 다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왜 몰몬경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성경의 위대하고 엄숙한 진리들에 대한 또 다른 증거들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한 본질에 대한 정당성과 참됨을 확인해 주는 증거인 기이한 영감의 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귀중하고 놀라운 간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읽읍시다. 그 진리를 상고합시다. 그 메시지를 배우고 그에 따른 축복을 받읍시다."[2]

구도자에게 주는 약속

"저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이 교회의 회원이 아니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이 교회에 대해 알아보시도록 권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것이 참된지 아닌지 여쭈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겸손하게 신앙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성신의 권세로 이 위대한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알 것이며 온 생애를 통해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없을지도 모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빛과 권세와 이해력이 임하여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진리가 전해지기 바랍니다."[3]

주님의 교회의 회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거나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이자 왕국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이며 온 세상에서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과거에 살았으며 또 앞으로 살게 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곧 여러분과 제가 맡은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많은 것을 포함한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업은 모든 인류에게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제까지보다 조금 더 준비하고 조금 더 친절하며 조금 더 훌륭해질 필요가 있습니다."[4]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는 아름답고 훌륭한 건전함이 풍겨 나옵니다. 우리는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홍차나 커피조차도 취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 대리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행하는 결혼이 가족이 실제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며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도처에 외설물과

마약과 범람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세상이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는 한층 더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하고 친절하게 또 크게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합니다."[5]

십일조

"십일조를 바치는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주님의 율법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다는 것이 바로 저의 간증입니다.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다고 느낄 때 그렇게 하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바칩시다. 주님을 시험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읍시다. 주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고결하고 정직하며 근면하고 충실한 남자와 여자로서 주님 앞에 의롭게 행합시다."[6] □

주

1.1998년 12월 6일, 대관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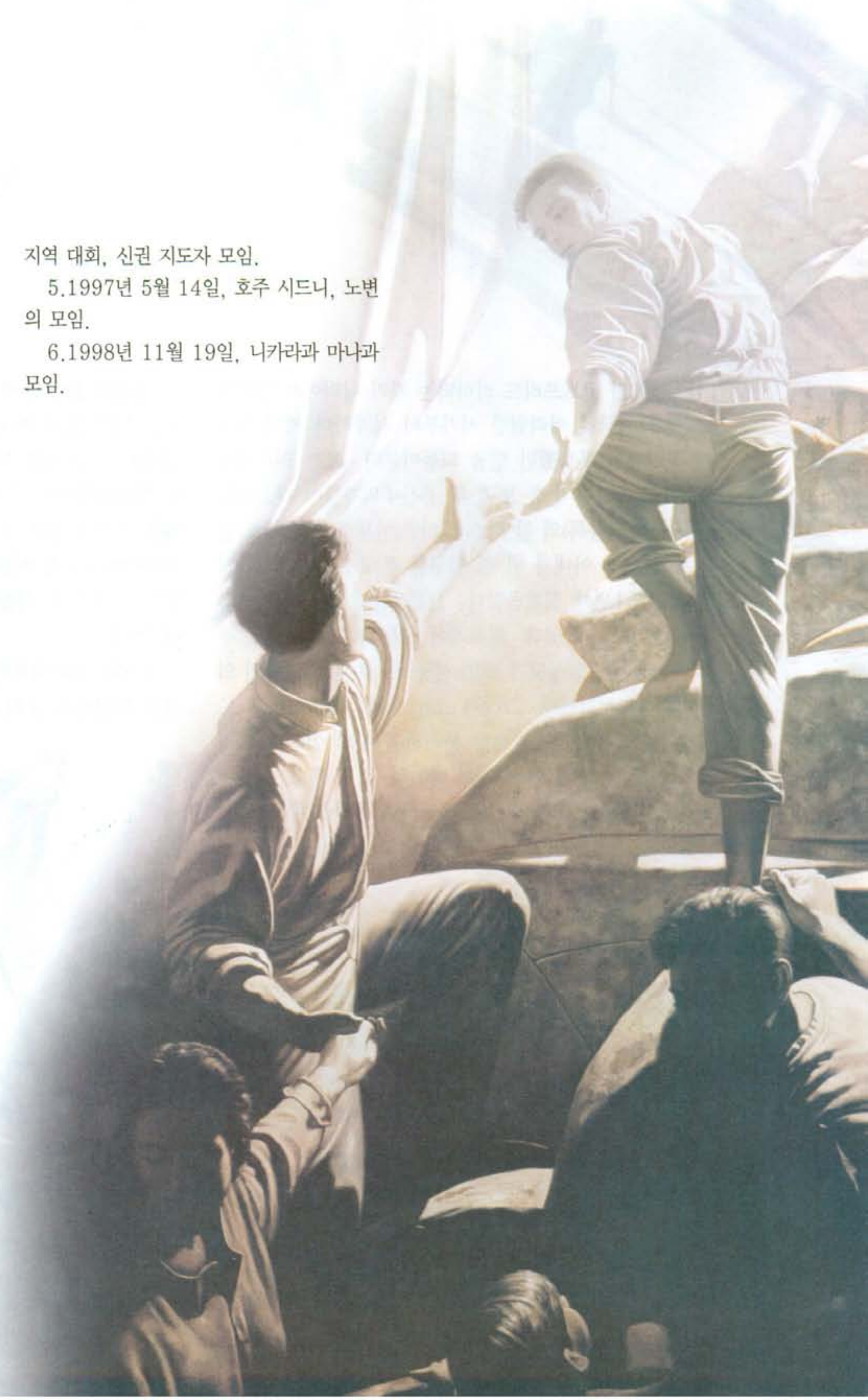
2.1998년 11월 15일,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모임.

3.1998년 10월 17일, 뉴욕 주 스키넥터 모임.

4.1998년 9월 19일 , 텍사스 주 휴스턴 지역 대회, 신권 지도자 모임.

5.1997년 5월 14일, 호주 시드니, 노변의 모임.

6.1998년 11월 19일, 니카라과 마나과 모임.



독일의 힘의 기초

독일의 교회는 160년간의 충실한 회원들의 봉사로 인해 굳건하게 세워졌으며 독일 전역에서 더욱 잘 알려지고 있다.

폴 반덴베르크

사진 촬영: 글쓴이; 지도: 토마스 에스 차일드

지금 79세인 고트프리드 리히터는 자기 나라에서 말일성도에게 지극히 어려웠던 시기부터 시작하여 거의 일생에 걸쳐 교회에서 봉사했던 일을 되돌아본다. 그는 러시아의 포로 수용소에서 4년 반을 보낸 후 공산주의자들이 다스리는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의 칼 막스 스타트(현재의 켐니츠)로 돌아왔다. 훗날 그의 아내가 된 한 친구를 통해 그는 교회를 알게 되었고 1951년에 침례받았다. 1952년에 그와 게르투루드는 첫번째 아기를 얻었다. 다음해에 그는 전임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이때는 말일성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비밀 경찰의 의심을 받게 되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는 지방부장과 그 후 드레스덴 선교부의 선교부장단으로 봉사하던 시기 이래로 여러 해 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제 예전의 그 전쟁 포로는 통일된 독일에서 독일 프라이베르그 성전의 인봉자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독일 드레스덴 스테이크 켐니츠 와드의 게르트루드와 고트프리드 리히터

"전쟁이 끝난 후에 소수의 젊은이들을 제외하고는 나이든 회원들이 많았는데 참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젊은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정말 특별한 일이죠." 리히터 형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그들은 서로 교회 안에서 결혼하고 복음 속에서 강한 자녀를 키우지요. 모레면 저는 프라이베르그 성전에서 젊은 부부 한 쌍을 인봉할 겁니다. 두 사람 모두 5대째 교회 회원이예요."

이러한 내부에서의 발전은 독일에서 교회

맨 왼쪽: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
왼쪽: 새로운 회원인 잉게 부쯔홀츠(왼쪽)와 함께 한 디틀러와 다니엘라 하이트브리더 가족. *아래:* 아내인 도리스 조지아와 함께 한 드레스덴 스테이크, 드레스덴 와드의 페터 멘첼 감독. *배경:* 베를린에 있는 라이히스타그(의회) 건물의 돔 내부.

왼쪽: 꽃장수. *왼쪽 위:* 베를린의 스테이크 대회. *오른쪽 위:* 베를린 스테이크장 빈프리드 바츠케와 아내 페트라. *아래:* 볼프강과 카린 필츠와 그들의 다섯 자녀 중 세 명: 소르스텐(뒤), 귀도, 로니아(앞).

오른쪽: 베를린에 신구 건축물이 나란히 서있다.

아래: 말일성도 4대: 어머니 니콜라 라이너와 함께 한 셀리느와 필립; 증조모인 에리카 베른트; 할아버지 디이터 베른트.

가 성숙되어 오늘날 확고한 토대 위에 서게 된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러한 지도력과 복음에 근거한 헌신적인 봉사의 기초 외에도 교회는 세 가지 다른 면, 즉 말일성도가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 비춰지는 면과 교회의 회원들이 오늘날의 도전에 맞서는 면 그리고 선교 사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면에서 굳건하다.

확고한 토대 위에 세움

베를린의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홀거 디 라쿠프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의 스테이크들은 강한 기초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을 가진 귀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지금 2세대, 3세대, 4세대 회원들입니다. 그들의 자녀는 교회에서 자랍니다. 그들은 가정의 밤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압니다."

1840년에 말일성도들이 독일에서 처음 복음을 전파한 이래로 교회는 실로 크게 발전해 왔다.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들어가기 4년 전인 1843년에 이미 독일의 담쉬타트에 첫번째 독일 지부가 세워졌다. 많은 반대 가운데서도 교회는 서서히 발전해나갔다.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어 독일과 스위스의 약 60개 지부에서 거의 200명의 선교사들이 철수하였지만 그래도 이 지부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선교사들이 다시 철수했지만 회원들은 계속 용감하게 복음대로 생활했다. 전후에 점령지로 나누어졌던 독일은 마침내 1990년에 통일되었고 서독과 본질적으로 분리되었던 옛 동독의 회원들은 동료 성도들과 다시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독일에는 14개 스테이크의 92개 와드와 96개 지부에 36,000명의 회원들이 있다.

교회의 내적인 성장에 대한 좋은 본보기는 볼프강과 카린 필츠 가족이다. 현재 남중부 독일의 만하임 스테이크에서 제1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필츠 부장은 내과 의사로서 1894년에 그의 증조부가 교회에 가입한 이래로 4대째 회원이다. 둘 다 귀환 선교사인 필츠 부장과 자매는 다섯 자녀를 두고 있는데 최근에 장녀가 프랑크푸르트 성전에서 결혼했다.

필츠 부장은 라쿠프 장로의 말과 같이 "교회는 이곳 독일에서 서서히 그러나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도자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가족들이 교회 안에 남아 있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 있으며 자신의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인구 8천 2백만 명 가운데서 교회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와 학교에서 아주 작은 숫자이다. 카린 필츠 자매는 "교사들은 그들이 교회 회원인 것을 알아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훌륭한 모범을 보이도록 배웠기 때문에 주목받는다. 카린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우리 딸 카트린이 처음 학교에 갔던 날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넌 몰몬이구나. 나도 몰몬 한 사람을 알고 있단다. 그 앤 작년에 졸업했는데 아주 훌륭한 소년이었어.'"

필츠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굳건하게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초등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작은 와드와 지부에도 훌륭한 교사와 훌륭한 반이 있습니다."

공보 활동에서의 향상

1900년대 초의 심한 반대로 인해 많은 교회 회원들이 자신이 교회 회원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제 독일에서 교회는 지역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통해 더욱 존중받고 있으며 더 잘 알려지고 있다. "우리가 교회의 평판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이름이 좋게 알려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에게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최근에 독일 북부의 노이마스터 스테이크장에서 해임된 욘 오츠만의 말이다.

베를린 스테이크 다렘 와드의 디이터 베른트는 독일의 공보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다. 그는 교회가 지역 사회와 대중 매체에서 오늘날보다 더 긍정적인 위치를 누린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교회가 중앙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들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전국의 종교 조직들 안에서도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한다. 전에는 이런 수준의 교제가 거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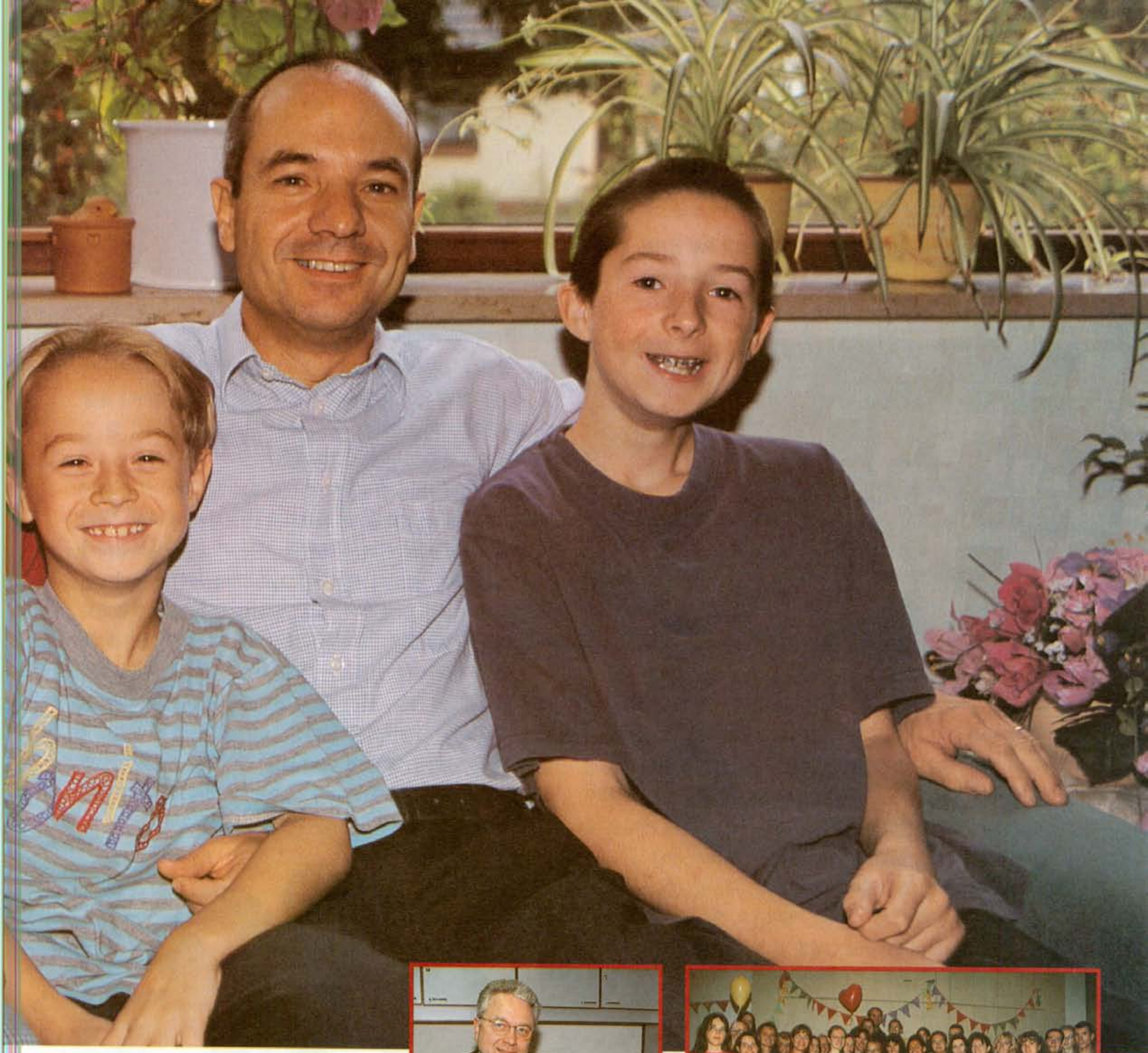
노이마스터 스테이크 피네베르크 와드의 공보 전문가인 모니카 다넨베르크는 스테이크 축복사로 봉사했던 할아버지를 위해 축복문의 타자를 쳤으며 할머니로부터 방문 교육을 하는 방법을 배웠던 4세대 회원이다. 다넨베르크 자매는 독일 전역에서 행해지는 것과 비슷하게 그녀의 스테이크에서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와드와 지부에서 공개 활동을 갖고 사람들을 초대해요. 종종 언론인들도 오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호의적인 기사를 썼어요." 이웃과 직장 동료와 교사와 친구 및 정부 관리들이 종종 침례식이나 결혼식 또는 교회 집회소에서 갖는 다른 활동들에 참석한다.

마찬가지로 독일의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 회원들은 다른 교회의 회원들과 접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시부의 네덜란드와 벨기에 접경을 따라 위치한 뒤셀도르프 스테이크의 스테이크 장인 한스 요아힘 에글리는 그의 스테이크에서 조직하여 여러 해 동안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 오케스트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부분이 비회원인 50명 정도의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일년에 두 차례씩 스테이크 센터에 모여 연습하고 음악회를 개최한다. 보통으로 250명 가량의 사람들이 참석하는데 음악회를 즐기기 위해 회원과 비회원이 똑같이 함께 온다.

위 배경: **아들 요나단과 플로리안과 함께 한 모니카와 헬무트 다넨베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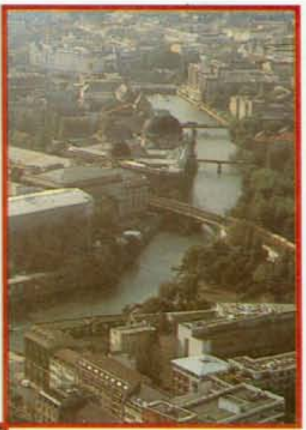
위 삽입: **교회 집회소 앞에 있는 모니카 다넨베르크.**

독일 북부에서는 라디오에서 반년마다 한 차례씩 정규적으로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을 방송한다. 또한 몇 년 전에는 주요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교회를 훌륭하게 부각시키고 청남 청



왼쪽 삽입: 독일의 가장 큰 박람회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세상"의 교회 가족 역사 전시회.

왼쪽: 드레스덴의 지평선. *위 왼쪽:* 최근에 노이마스터 스테이크장에서 해임된 욘 오츠만. *위 오른쪽:* 드레스덴에서 말일성도 친구들이 엔리코 프라이슬러와 티나 코슈니카(앞의 중앙)의 약혼을 축하해 주고 있다.



아래: "여러분과 여러분의 세상" 박람회의 교회 전시회.

오른쪽: 베를린 풍경.

녀 조직과 가족 역사 센터 및 성전 사업과 가정의 밤에 대해 크게 다루었다.

독일 남부에 있는 스투트가르트 스테이크의 하인쯔 스테이크 부장은 그의 스테이크 산하에 있는 13개의 집회소 중 9개의 집회소에 가족 역사 센터가 있는데 기록적인 수의 비회원 방문자들이 들른다고 설명한다. 또 그는 구세주에 관한 무료 비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사회와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한다. 그 테이프는 회원들이 개인적으로 친구들과 이웃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들은 종종 손님을 집에 초대하여 그 프로그램을 본 다음 그들에게 그 비디오를 선물한다.

담쉬타트 와드의 회원인 필츠 부장과 자매는 딸의 성전 결혼에 대해 이야기한다. 필츠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집회소의 활동실에서 개최한 결혼식 파티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300명 정도의 손님이 왔어요. 그 중 많은 사람들이 비회원이었어요." 필츠 부장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교사들과 반의 급우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일성도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손님들은 교회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필츠 자매는 말한다. "참석했던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친구들과 이웃에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훌륭한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선교 사업이예요."

독일 북부에 있는 함부르크 스테이크와 노이마스터 스테이크의 회원들과 선교사들 및 함부르크 선교부는 해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세상"이라는 독일의 가장 큰 소비자 박람회에서 함께 일한다. 교회의 전시물은 가족 역사 사업과 일반적인 가족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계보 기록을 찾기 위해 컴퓨터도 전시한다. 방문자들은 그 컴퓨터에서 자신의 전자 사진을 찍어 개인 가족 나무에 인화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이 박람회와 그런 물품을 전시하는 다른 많은 행사에서 몰몬경과 기타 교회의 자료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진다. 1999년의 박람회에서 선교사들은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5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받았다. 오츠만 스테이크장은 사람들이 단지 친척들의 이름을 찾는 것 그 이상의 것에

성전의 축복

현재 대관장단의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은 1968년에 공산주의자들이 관리하던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을 처음으로 방문했다. 몬슨 부대관장은 쾰리쯔 시에서 일단의 말일성도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이 회원들이 복음의 많은 축복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없는 것을 알고 마음아파 했다. 그들에게는 축복사도 없었고 와드나 스테이크도 없었으며 단지 지부만 있었고 성전 의식도 받을 수 없었다.

몬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북받치는 감정을 누르며 연단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참되고 충실하다면 다른 나라에서 교회 회원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65쪽)

칠 년 후 몬슨 부대관장은 다시 동독으로 되돌아가서 1975년 4월 27일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그 땅을 재헌납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는 평화가 수립되고 선교 사업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간구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충실한 자들이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거룩한 엔다우먼트를 받고 현세와 영원을 위한 가족 인봉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복음 그물을 당김", *성도의 벗*, 1987년 1월호, 78쪽)

그 기도를 하던 당시에는 이러한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드레스덴 와드 감독단 제1보좌인 만프레드 헬러는 성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1985년 이전에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한다. 해외로 여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만 했다. 예외적으로 이따금 은퇴한 사람들이 허가를 얻어서 엔다우먼트를 받으러 스위스로 여행했다.

여러 해 동안 모든 가능한 일을 알아본 후 해답이 나왔다. 몬슨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많은 회원들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 가장 자연스런 방법으로 정부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을 성전 방문을 위해 스위스로 가게 하기보다 이곳 독일 민주 공화국에 성전을 세우는게 어떻겠소?'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프라이베르그에 가장 좋은 대지를 구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첫삽을 뜨게 되었습니다."("하나님께 감사함",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66쪽)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4년 전인 1985년 6월 29일에 독일 프라이베르그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헌납식 전에 있었던 두 주간의 일반 공개 모임에 약 90,000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다녀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성전을 보기 위해 비를 맞으며 5시간 동안이나 서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충실한 말일성도들이 이 거룩한 집에서 자신의 성전 축복을 받습니다.

베를린 스테이크의 빈프리드 바츠케 스테이크장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몬슨 부대관장님이 오셔서 이 땅을 헌납하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어떻게 하나씩 이루어 지는지 보아 왔습니다. □

왼쪽: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테이크, 프랑크푸르트 와드의 청남들.**

관해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찾고 있던 것을 찾았습니다."

힘있게 도전에 맞섬

세계의 5대 경제 대국 중 하나인 이 유럽 국가에는 이제 동독과 서독 사이에 현저한 차이마저 있는 경제적인 현실이 존재한다. 옛 동독의 교회 지도자들이 실직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반면 옛 서독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만족에 대해 이야기한

다. 남부 독일의 스투트가르트 스테이크의 슈빙 스테이크장은 이렇게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활과 사회적인 면에서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게 되면 신앙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게 됩니다."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동독에는 새로 찾은 자유가 들어왔다. 켐니츠의 리히터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우리는 많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자유와 함께 위험도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 그렇다. 드레스덴 스테이크의 지그프리드 자커 스테이크장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 "그 모든 새로운 기회와 자유에는 그 자유를 관리할 책임 즉 주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의 시간과 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자커 스테이크장은 교회 회원들이 주님의 왕국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열심히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증가하는 자유에 대한 이런 도전과 관련하여 오늘날 세상에서 많이 직면하게 되는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부도덕과 방종을 키우는 세속적인 풍조가 그것이다. "천박한 드레스가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라고 오츠만 스테이크장은 말한다. "몇몇 다른 교회들은 동성애가 용인될 수 있는 것이며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괜찮다고 공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약과 술이 더욱 더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 젊은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복음은 이러한 해로운 경향으로부터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그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 인정하고 있다.

프란체스카 모렐리가 3년 전에 북부 독일에서 선교사들을 만났을 때 그녀는 16세였으며 또래들로부터 해로운 압력을 받고

왼쪽: **베를린 스테이크 노이퀼른 와드의 아닐리사 슈악과 손녀인 야나.**
삽입 사진들, 위로부터: **드레스덴 와드의 기젤라와 만프레드; 남부 독일의 경치; 게르힐드와 지그프리드 자커.**

오른쪽: 드레스덴 와드의 토마스 겔로우프.
아래: 피리나 발보와 딸인 프란체스카 모렐리. *맨 아래:* 베를린 스테이크, 다렘 와드의 크리스타와 칼 하인쯔 겐슈.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들을 만나기 두 주 전에 제 친구들은 제가 마약을 시작하기를 바랐어요. 그 당시 저는 선교사들을 만났고 모든 것이 변했어요."

여러 주 동안 토론을 한 후 프란체스카는 침례를 받고 싶었지만 그녀의 어머니가 심하게 교회를 반대했다. 프란체스카는 많은 간청과 고통 끝에 마침내 어머니의 허락을 받았다. 그녀는 1997년 11월 23일에 침례받았다. 함부르크 스테이크의 알토나 와드 회원들은 사랑과 우정으로 그녀를 환영했다. 특별히 청녀들이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프란체스카는 "저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교회 친구들이었어요."라고 말한다.

프란체스카가 침례를 받은 이후로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모범을 따라 교회에 가입했으며 남동생도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선교사를 만났던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해요."라고 프란체스카는 말한다. "만일 복음을 알지 못했다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저는 몰라요."

선교 사업의 발전

리히터 형제가 러시아의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와 1953년에 동독의 선교부에서 봉사한 이래로 선교 사업은 극적으로 변했다. 실제로 외국인 복음 선교사들이 1989년에 다시 동독에 입국하도록 허락받았을 때는 그 지역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이 봉사한 지 50년이 흐른 후였다. 같은 해에 동독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그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봉사하도록 허락받았다.

이제 독일에는 6개의 선교부가 있으며 독일 전역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다. 오츠만 스테이크장은 1972년의 자신의 선교사 부름을 되돌아본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 저희 와드에서는 단지 두 명의 전임 선교사만 배출했는데 그 와드는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때 이후로 활동적인 청남 대부분과 몇몇 청녀가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현재 노이마스터 스테이크에서는 14명이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또 1991년 이후로 우리 스테이크에서는 65명 정도의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1999년에는 172명의 독일인 전임 선교사들이 전세계에서 봉사했다.

드레스덴 와드의 토마스 겔로우프는 공산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봉사하도록 허락해 준 두 번째 그룹의 선교사들에 속한다. 그는 1990년 5월에 동독을 떠나 콜로라도에서 봉사하고 선교부에서 귀환하여 재통일된 독일로 돌아왔다. 그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전임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들어왔을 때 동독의 교회 회원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기억한다. 겔로우프 형제는 당시에 스테이크 선교사로 봉사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것은 전임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한 훌륭한 준비였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 9시나 10시까지 토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드레스덴에 온 후 약 6개월 동안 거의 매주 일요일마다 침례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교회 역사

1840년	말일성도의 도착이 처음 알려짐
1843년	담스타트에 최초의 지부가 세워짐
1852년	독일에 첫 선교부장이 도착함, 독일어 몰몬경이 나옴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선교사들이 독일에서 철수함
1945년	선교사들이 서독으로 돌아왔지만 소련 점령지에는 입국을 허락받지 못함
1947년	드레스덴에서 약 5,000명의 회원들이 교회의 개척자 100주년을 기념함
1961년	8월 12~13일 밤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짐
1977년	도르트문트의 에프 엔지오 부시 장로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 지지받음
1985년	독일 민주 공화국에서 동독 프라이베르그 성전이 6월 29일에 헌납됨; 29,900명의 회원(1975년의 13,829명과 비교)
1987년	8월 28일에 프랑크푸르트 성전이 헌납됨
1989년	3월 30일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이 동독에 입국함; 5월 28일에 최초로 동독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떠남;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짐
1990년	10월 3일에 독일이 통일됨
1994년	프랑크푸르트의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장로가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 지지받음; 1996년에 제일 정원회에 지지받음

오늘날의 독일

인구	82,000,000명
면적	356,910평방 킬로미터
교회 회원수	36,000명
성전	2개(프랑크푸르트 성전과 프라이베르그 성전)
스테이크	14개
와드	92개
지부	96개
선교부	6개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 학생 수	2,232명

세워질 토대

새로운 회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와드와 지부에 힘과 새로운 생명과 활기가 더해지면서 교회는 계속 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무수한 의로운 부모들이 — 그들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 복음의 메시지를 배웠으며 그 부모는 그것을 또 그들의 부모로부터 배웠고 그들은 또 그들의 부모로부터 배웠다 — 또 다른 충실한 말일성도 세대들을 양육하고 있다.

독일 회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그들이 혼자 이러한 도전에 맞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온다. 그들은 전세계적인 성도의 공동체에 결속되어 있다. 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에 동독의 회원들이 여전히 교회 전체와 격리되어 있던 때조차도 켐니츠(당시는 칼 막스 스타트)의 리히터 형제는 동료 성도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리히터 형제는 드레스덴 선교부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 모임에 대한 허가를 요청해야 했다. 종교적인 모임은 그것을 개최하기 전에 공식적인 인가가 필요했다. 정부의 담당 관리는 교회가 미국적이고 교회 회원들은 교회가 보살펴 주고 도와줌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동독에서 교회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믿었다.

리히터 형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우리 교회는 국제적입니다. 당신은 제게 낙하산을 착용시켜 세상의 아무 곳에라도 떨어뜨리십시오. 그러면 저는 가까운 말일성도 예배당에서 아주 마음 편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그 관리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모임의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마무리지었다.

지그프리드 자커 스테이크장은 “전세계에 구세주와 그분의 교회에 대해 똑같은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천 백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라고 말한다. 독일과 전세계에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서 2:19) □

3가지 질문

디낼리 채프먼
그림: 샘 로울리

십대일 때 내게는 독립과 개인적인 자유가 무척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언제 집에 돌아갈 것인지를 항상 알고 계셔야 하는 우리 집의 규칙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이복 형제 자매들과 나는 그 규칙에 대해 불평하면서도 그것을 지켰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13세인 여동생 제니와 함께 배구팀에 들어갔다. 우리 팀은 아주 뛰어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못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그저 재미로 배구를 했다.

집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여러 팀이 참가하는, 시즌에서 가장 신나는 경기 중의 하나가 열리게 되었다. 내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딴 지 일년 이상이 되었으므로 부모님은 내가 여동생을 데리고 우리 집 밴을 운전해서 그곳에 가도록 허락해 주셨다. 제니와 나는 항상 잘 지내지는 못했지만 그 곳으로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 둘만 있게 되자 우리는 진심으로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날 저녁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무척 재미있었다.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제니와 나는 집을 향해 출발했다.

차를 몰기 시작한 지 15분 후에 차가 많이 다니는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 차의 연료가 다 떨어지게 되었다. 늦은 밤이었으므로 우리는 다음 램프까지는 갈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진입로에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고가 도로 아래에서 차가 멈추게 되었다. 우리는 겁에 질려 기도하기로 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했다. "제발 우리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마치자 나는 비상시에는 차의 후드를 들어올리고 안테나에 하얀 것을 걸어두어야 한다고 배웠던 것이 생각나서 그대로 했다. 우리는 그것이 단지 경찰차가 와서 도와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차의 불빛을 번쩍이고 경적을 울렸는데도 경찰차가 멈추지 않고 우리 옆을 지나치는 것을 우리는 세 번이나 보았다.

거의 절망적이 된 우리는 다시 기도하기로 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도하고 난 후 우리는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입로 표시판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전화를 찾아보려고 그 쪽으로 걸어가 보기로 했다.

500미터쯤 걸어갔을 때 우리는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차 소리를 들었는데 그 차는 속도를 늦추고 있었다. 우리 기도

에 대한 응답일까? 돌아보니 두 대의 오토바이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둘 다 차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차로 돌아와서 우리는 함께 웅크리고 서로를 위로해 주려고 노력했다. 성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속삭여 줄 때 우리는 창밖을 내다보다가 엄마 아빠가 고속도로 반대편의 정류소로 오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걱정하고 계시던 엄마 아빠의 품으로 뛰어갈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안도와 감사를 느꼈다.

우리는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물었다. 부모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쯤 돌아올지 알고 계셨다고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대답하셨다. 우리가 항상 이 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제시간에 집에 오지 않자 우리를 찾으러 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다.

나는 다시는 부모님이 세운 엄격한 규칙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다. □

리아호나
2000년 11월호를 활용함

말씀, 반 공과, 가정의 밤 공과, 또는 세미나리 영적 모임을 위해 사용할 이야기나 인용문을 찾고 계십니까? 이번 호 *리아호나*에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 쪽의 숫자는 이번 호의 쪽을 나타냅니다. 친=*친구들*.)

가정의 밤 제언

■ "풍성한 삶을 얻음," 2쪽: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의 말씀을 토론한다. "제가 알기로는 교회는 모든 논쟁적 질문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으며 답변해서도 안됩니다."

■ "시온부터 멸망까지: 니파이사서의 교훈", 24쪽: 시온의 백성을 특징짓는 세 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와드 또는 지부에서 이 조건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 "여러분의 미래", 22쪽: 가족 구성원에게 10년 후의 자신의 인생이 어떤 모습이 되겠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각자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것을 설명하게 한다.

■ "안젤라의 신앙", 친 8쪽: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올바른 일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불친절하거나 불공정하게 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왜 주님께서는 스스로 변화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실 수 없는가?

이번 호의 주제들

가정 복음 6
가정의 밤 48
가족 관계 46
가족 역사 8, 26
개종자 26
계시 2
고결성 7
기도 친8
기회 22
독일 34
모범 친16
몰몬경 14
방문 교육 25
배도 14
병고침 26
봉사 25, 친5
브라질 8
성약 25
성전 및 성전 사업 8, 22, 26
세계적인 교회 34, 친2
순종 46, 친5
시온 14
신앙 2, 26, 34, 친8
신약 성서 이야기 친12
십계명 7
예수 그리스도 14, 25, 친12
예언자 32, 친16
우간다 친2
준비 22
지도자를 지지함 2
지식 2
초등회 친6, 친16
침례 친12

부부 선교사 이야기에 대한 요청

여러분은 배우자와 함께 선교 사업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에 대한 이야기나 기사들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COUPLE MISSIONARY SERVICE, Liahona, Floor 24,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84150-3223, USA; 전자 우편 주소: CUR-Liahona-Imag@ldschurch.org. 여러분의 성명, 주소, 전화 번호, 와드와 스테이크 (또는 지부와 지방부)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그림: 로버트 티 배렛, *베냐민 왕이 모사이야에게 왕국을 넘겨 줌*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백성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로 언약한 후
"그의 아들 모사이야를 성별하여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와 왕으로 봉하였고, 나라의 온갖 정사의 책임을 맡기"(모사이야서 6:3)었다.

독일에 지부가 세워진 지 거의 160년 후, 독일의 교회는 부모들이 복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선교사와 회원들이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에 따라 내부로부터 성장하고 있다. 34쪽, "독일의 힘의 기초" 참조.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테이크 프랑크푸르트 와드의 크리스토프와 실케 플리게 루카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성전, 독일 프라이베르그 성전

4 15209 91320 2
20991 320